NOV 27 1981
EAST ASIAN LIBRARY
RM 3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680 1981년11월26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hursday, November 26, 1981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리퍼블릭은행－외환은행
$200만 종이로변해
뉴욕－서울, FBI와 한국경찰 긴장

(서울본사, 뉴욕지사=종합) 미화 200만달러의 현금도난사건이 뉴욕과 서울간에서 일어나 미국 FBI와 한국경찰을 긴장시키고 있다. 25일 서울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미국 리퍼블릭 은행(Republic National Bank)이 한국으로 보낸 현금 100달러짜리로 뭉쳐진 200만달러의 화물이 대한항공 화물편에 의해 서울로 보내졌으나 수신사인 외환은행은 200만달러 화물이 휴지임을 발견했다.

한국경찰 발표에 의하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 11일 이 현금화물이 뉴욕발 서울행 KAL기에 부쳐진데서 시작됐다. 5개 뭉치로 나누어진 이 현금화물은뉴욕 케네디공항을 출발, 페어 뱅크와 알라스카 에서 재급유를 받은 후 12일 서울에 도착했다.

수신자 한국외환은행측은 첫번째 뭉치를 끌러 본 순간 현금과 같은 크기 의 종이뭉치로 되어있는 것을 발견, 곧 화물개봉을 중단하고 리퍼블릭뱅크 홍콩지점과 경찰서에 연락했다.

다음날 리퍼블릭은행 관계자와 경찰관, 보험회사인 영국계 로이드회사 대표등 관계자의 입회하에 나머지 4뭉치를 끌렀으나 전부종이조각뿐이었다.

사고후 은밀히 수사를벌인 보험회사와 한국경찰, FBI등은 25일 현재 이렇다할 단서를 못잡고 있다.

한국측 수사관들은 이도난은 이미 뉴욕에서 화물이 실리기 전에 행해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한편 사건을 수사중인 FBI 뉴욕사무소 죠·브라니건 대변인은 "사건은 현재 수사중이며, 진행중인 사건의 발표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뉴욕지점은 25일 이 문제로 긴급회의를 열고, 운송과정등을 조사, 사고대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 뉴욕지점은 아직 아무런 사건통보를 못받았다면서 홍세표 지점장은 "보통 한국외환은행은 150여개 미국은행들로부터 직접 미화를 사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리퍼블릭은행 뉴욕 지점은 컬 부사장 지휘 아래사건을 조사중이나 논평하기를 거부했다.

소련 간첩활동 극성
뉴욕·워싱턴·SF가 본거지

(뉴욕15일－AP)미국에서 암약하는 소련 간첩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의 개방적 분위기가 그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뉴스위크지가 15일 보도했다.

뉴스위크지는 최근호에서 소련은 긴요한 정보수집을 주로 비밀활동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련은 전자시설을 이용미국의 주요 국방분야 계약자간의 통화내용을 탐지하고 있다고 이 잡지는 말했다.

이 잡지는 또 FBI의 한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 미국에 있는 소련관리 1,041명중 약 350명이 스파이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즈는 14일 한 FBI 요원의 말을 빌어 외교관이 많이 모여 있는 뉴욕시가 스파이들의 주요활동무대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뉴욕외에 워싱턴과 샌프란시스코가 KGB들의 본거지라고 말했다.

한국, 무역적자 증가
캐나다와도 적자기록

(서울 25일=연합) 주요무역대상국들과의 교역에서 한국의 적자폭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25일 발표된 한국무역인협회 보고서는 한국은 미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및 그밖의 7개 무역대상국들과의 교역에서 금년 10월말 현재 64억달러의 무역적자 수치를 나타냈다고밝혔다. 작년도 동기의 무역적자는 59억달러였다.

1월~10월간 10개 주요무역대상국들로부터의 수입은 173억달러로 총수입의 81.1%를 차지했으며, 이들 10개국에 대한 수출액은 109억달러에 그쳤다.

일본과의 무역적자는 작년의 23억달러보다 4% 증가한 24억달러인 반면, 미국과의 무역적자는 작년 1억8100만달러였던 것이 37.6% 올라 올해 2억4900만달러에 이르렀다.

호주, 말레이시아, 캐나다와의 무역적자도 각각 작년보다 57.4%, 54.6%, 46.9%가 증가됐다.

한국은 다만 쿠웨이트와 인도네시아 2개국에서 무역수지를 향상시켰다고 동보고서가 말했다.

10개 주요 무역대상국들중에서 한국은 서독으로부터 유일하게 무역흑자를올렸다. 그러나 액수로 볼때 작년의 1억8600만달러에서 올해는 1억1100만달러로 떨어졌다.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 희망
맥귀간, 쏘측에 남한승인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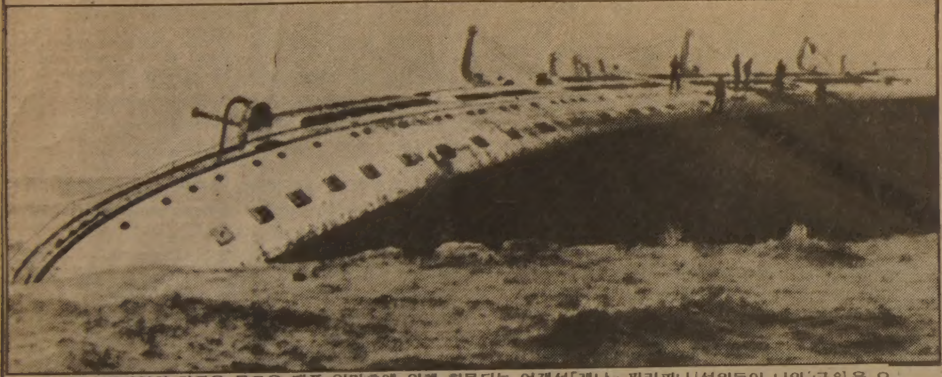
캐나다의 마크·맥귀간 외무장관은 23일 소련과그 동맹국들은 한반도 정세의 호전을 위하여 남한을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소련과 동맹국들이 남한을 승인하여 남, 북한 양측이 유엔 회원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맥귀간은 역설했다.

그의 이와같은 발언은자신이 캐나다 주재해외특파원을 위해 베푼 오찬석상에서 행해졌다.

맥귀간은 소련 위성국들의 비협조에도 불구, 남한의 북한과의 대화재개를 위한 끈임없는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달초 일본방문시 일본 고위관리들과 한국문제에 관해 토의했냐고 질문을 받자, 다만 일반적 아시아정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간단히 대답했다.


◇시속 128마일의 강풍을 몰고온 태풍 일마호에 의해 침몰되는 여객선「레나·필리피나」선원들이 나와 구원을 요청하고 있다. 대부분승객이 헬리콥타에 의해 구조됐다.

트루도수상 방한수행 100시간 (끝)

정상회담을 마치고
— 김포공항으로 가는 길에

계속 바쁜 스케줄의 연속이다. 6시30분부터선「영빈관」에서 수상이 베푸는 송별「리셉션」이 시작됐다. 남덕우 총리를 비롯 장관 국회의원, 주한외교사절 등 400여명이 훨씬넘게 참석. 몸놀움직이기도 힘들었다.

수상은"이처럼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요지의 간단한 인사가 있은 후에, 사석에서 수상에게서울에서 더 머물고 고향 에 다녀갈거라고 얘기 했더니 수상은 그옆에「켄로빈슨」도 더 머물거라면서 즉시로 그자리에서 선뜻 기념촬영포즈를 취해주었다. 뱅쿠버에서 미리와 있었던현동출 사진기자가 우리들을 위해 촬영해 주었다.

◇트루도 수상과 나란히, 좌부터 트루도, 켄·로빈슨, 이태은 특파원

수상과 같이 사진을 찍고나자 나는 누구인지도전혀 모르는 고위층 여러사람들이 자기들도 수상과같이 사진을 찍게 얘기해 달라고 부탁. 겨우 캐나다 6.25 참전용사들과 같이 수상을 영빈관 밖에 모셔 포즈를 취하도록 했다. 같이온 다른기자들은 출발때문에 짐을 챙기느라 현장에 없었고 근접촬영은 나와, 뱅쿠버 현기자만이 가능했었다. 여기저기서 사진때문에 야단 법석이 났다. 나는 사진기자가 아니라고 변명해도 막무가내다.

겨우 이곳을 빠져나와보니 7시30분. 수상보다 30분먼저 공항으로 출발하는기자단 버스가 짐과 장비를 싣고 이미 떠나 버렸다. 내가 서울에 더 머물게 되는 것을 아는 기자들은 아무도 없다. 작별인사도 해야하지만 나는 여권도 없었다. 보좌관이 우리 모두의 여권을 보관하고있기 때문이다. 이거 큰일났다고 생각, 택시를 잡아타고 마구 김포로 내달렸다. 한참을 달려도 중요간선은 모두가 수상을 대비해서 교통이차단되어 버렸다.

수상전용기 이륙시간8시 30분. 15분의 여유밖에 없다. 나는 교통순경에게「푸레스카드」를 보이고, 통과시켜달라고 했으나 누구도 안된다고 한다. 나는 다시 황색카드인 수상보좌관 카드를 보이면서 이래도 안되느냐고 했더니, 고개를갸우뚱 하면서 통과시켜 준다.

나는 가까으로 기자버스와 수상이 도착전에 기내앞에 도착했다. 나를본 기자들이 깜짝 놀랬는지 헬기로 왔느냐고 조크한다. 나는 가족때문에 이기에더있게됐다고 사정을 얘기하고, 모두에게 작별 악수를 나누었다. 곧이어서 남총리와 같이 도착한 수상은 관계자들과 일일히 작별인사를 한후 도열병 사이를

붉은 카펫을 밟고통과, 맨 나중 트랩앞의 나와 현 [illegible] 후 탑승했다.

나는 기자버스로 돌아와 앉자마자 휴우 한숨을 쉬면서 숨가쁜 일정이었다고 생각했는데, 문공부 담당직원이 여기에 뭐가 있다고 알려준다. 자세히 보니, TV기자들의 푸래쉬등 촬영기재 보따리가 두개나 있었다. 위험했으나 우린 짐을들고 마구 기체앞으로뛰기 시작했다. 이륙 준비중인 비행기에 가까스로 짐을실고 돌아왔다. 완전히 기진맥진이 됐다. 뭔가고국에 온 보람을 찾은것 같아서 마음은 형언할수 없을만큼 기뻤다. 김포공항을 돌아오는 가로등 을 헤치며, 마음은 가을하늘보다더 높고 시원한것 같았다.

글·사진
이태은특파원

〔편집주 : 본보는 지난 9월27일부터 29일 까지 캐나다수상으로는 최초인 트루도수상의 방한을이태은특파원을 통해 특종보도했다. 지난10월27일부터 시작한「트루도 방한수행 100시간」은 오늘 11월26일자「제 8 회」로 끝을 맺 는다.

본보 이태은특파원은 현재 오타와지국장을 맡고있다. 이지국장은 그동안 신문에 기사가 연재되는 동안 많은 독자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애독자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린다고 한다.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536~1692
R)245~3539
454 BLOOR ST. W. TORONTO. ONT.

강 찬 영
변 호 사
537－3171
~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랙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35 BLOOR ST. W(한국관

캐 나 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KIM's ART GALLERY
PICTURE FRAME
WARE HOUSE

●사진 액자 전문
●동양화 취급
●유화. 초상화
●CUSTOM PAINTING
●CLEANING & RESTORING

1286 WESTON RD.
(에그린톤 × 웨스톤)
(B)243－0233 (R)651－2261
김 석 환

도매상에의 초대
—AN INVITATION TO ALL THE RETAILERS—
★소매업자만 거래함★
우리 도매상에는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상품이 진열돼 있읍니다.
기프트, 노블티, 사진기구, 필름, 은(銀)장식기구, 비데오, 선물용품등.

PRUDENTIAL DISTRIBUTORS
1377 DUFFERIN ST. TOR. M6H 4C7
(Just North of Dupont)
☎ : 536－1131
영업시간 : 월~금 9시~하오5시30분(토, 일요일 휴업)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East AsianLibrary
Rm 3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TTC요금 내년부터 75¢로

8장에 $5, 학생노인요금도 인상

토큰 사재기 방비책, 1인당 1권만

메트로시의회는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 10.6%의 TTC요금 인상안을 22−16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어른요금은 8장에 $5이며, 1회 요금은 65¢에서 75¢로 오른다.

노년층과 학생표도 올라 8장에 $2.50이 된다.

폴·갓프리 의장은 더이상 주정부의 보조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 정도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 요금제도는 내년 1월 3일 적용될 것이라고 TTC전무 알프레드·사베지씨는 말했다.

한편 인상요금에 대비 토큰을 많이 사두려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 TTC 당국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

TTC대변인 빌·프로스트씨는 최근 2사람이500달러 상당의 토큰을 사려고 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얼마나 많은 토큰들이 팔렸는가에 대해선 함구했으나 내년 요금인상이 실시되기 전까지 현재 TTC가 보유하고 있는 토큰 9백만개가 거의 모두 팔릴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10월초부터 TTC 요금이 10.6% 오른다는 말이 나돌자, 많은 사람이 여분의 토큰을 사두기에 바빴다.

그러던중 지난 20일부터 TTC는 1사람당 $4(7개의 토큰이나 티켓)어치 이상 팔기를 중지했다.

TTC는 이미 메트로 시위원회의 요금인상안 승인을 예상하고, 새 티켓을 만들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번 요금 인상에 대해서 공공연한 반대표시는 않고있다.

메트로토론토의 한 관리는 "시민들은 빵, 우유, 개솔린등 각종물가의 인상에 실컷 두들겨 맞아 TTC 요금에 대해 왈가왈부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다른 물가가 오르는 것처럼 이것도 당연히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말했다.

◆벌써 X머스 쇼핑−영국의 다이아나 왕태자비는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쇼핑에 나섰다.

청소년 문화의밤
고전무용등 프로다양

런던한인회 산하 청소년회는 11월28일(토) 하오 7시 런던의 Althouse College Auditorium에서 「청소년 문화의 밤」을 실시한다.

동프로중 특히 고전춤을 지도한 김원일씨의 공이크다고.

센·마이클합창단
X−마스 합창제

소년합창단으로 유명한센·마이클학교합창단의 제42회 크리스마스·콘서트가12월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하오8시 메시홀에서 열린다.

입장권은 $6, $8, $10의 3종류.

이경륜씨 최고대상 받아

다이아몬드 디자인 경연대회

◇이경륜씨의 수상작 여자용 클라스·펜던트

다이아몬드 디자인 경연대회인 다이아몬즈·투데이(Diamonds Today) 대회에서 이경륜(40)씨가 여자액세서리부문 최고대상을 차지했다.

150여 작품이 서로 겨룬 이번 대회에 이씨가 수상한 작품은 작은 다이아몬드가 황, 백금바탕위에 총총히 박힌 휘황찬란한 클라스·펜던트(고급목걸이).

73년부터 2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다이아몬즈·투데이 대회는 다이아몬드취급상, 도매상들의 관심이 총집중되는 대회로 그 해 다이아몬드의 유행이 이대회에서 결정된다고 해도과언이 아니다.

심사기준은 실용성, 독창성, 판매성등이며 60년대의 복고조와는 달리 금년도 대회 출품작의 특징은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비싸지 않고, 유행에도 민감한 작품들이었다.

이경륜씨는 경기여고, 서울미대(65년졸)를 거쳐 정금사에서 보석디자이너로 일하다가 71년 캐나다에이민온 뒤부터 현재까지 11년간 보석도매상인 Myerson Jewellery LTD.에 근무, 현재는 시니어·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

이경륜씨는 한국에서도 이미 70년 최우수공예전에서 상공부장관상을 탄것을 비롯, 국전입상등 다수의 수상경력을 갖고 있다.

한국사람으로 이 대회에 출품하기는 이씨가 처음이다. 이씨는 75년도에는 장려상을 받았었다.

욕빌에서 「HYO 그래픽스·스튜디오」를 열고있는 김효씨의 부인인 이씨의포부라면 "개인 샵을 열어직접 보석애호가들을 위해디자인하는 것"이라고.

◇상장과 부상으로 다이아몬드가 박힌 메달을 받고 있는 이경륜씨

<1982년도 캐나다 예산안 해설> ②

장기이자소득 3년마다 과세대상

최고세율67% → 50%, 소득 이월가능

회계사 심상수제공 (Mintz and Partners근무)

1) 개인에 미치는 영향(계속)

●이자율의 과세

82년도부터 정부는 이자율에 관한 세금은 분기별로 나누어 미리 정한다.

이자율의 기준 90일째 정부공채에 준한다.

82년 1~3월 ¼분기의 이자율은 19%이다.

●개인소득세율 변경

신예산안에서 82년도부터 인컴택스의 율을 조정한다. 종전에 연소득 133,440달러 이상에 부과하던 63%의 세율을 50%로 감소·조정하고, 그 이하 소득자들의 세율은 변경조정한다.

그러나 세금공제 혜택은 종전 500달러까지 되던 것은 200달러로 줄어들었고, 배우자로 인한 공제액은 20달러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개인소득액(연간)
연방과 주세를 합한 세율
82년도 81년 이전
이하 이상

이와같이 세율이 82년도 감소조정됨에 따라 81년도에 많은 세율의 소득자는 그 소득의 일부를 82년도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

특히 종전에 67%까지 내던 연소득 133,440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는 은퇴연금저축권(RRSP)를 빨리 사는 것이 유리하다.

●학비와 교육비

82년도부터는 비 교육적이고 오락적인 요소의 수강은 월 50달러 교육으로 인한 세금공제에서 제외된다. 학비로서는 코스당 100달러 이상 지불한 경우에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자소득에 관한 세율

장기연금증서나 장기예금증서, 또 복리계산 채권등에 관한 이자는 수년후 소득으로 간주하던 것은 제한한다.

81년11월12일 이후에 투자한 이같은 증서에 대한 이자소득은 매3년마다 해야 되며, 그전에 이미 투자했던 증서들은 87년12월31일까지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행해진다.

●소득세율의 기준

50%의 소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1년동안의 모든 소득을 보고해야 한다.

50% 미만 세율을 적용받던 사람들은 개정된 세율로 인한 소득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미술.음악 곁들인 "문학의 밤"

토론토의 한인가톨릭대학생회인 한맘청년회(회장 김도홍)는 27일(금) 하오 6시 던다스성당 청년회강당(941 Dundas St. W.)에서 「문학의 밤」 행사를 갖는다.

이날 발표종목은 시낭송에 김대호(문협회원), 김영규, 수필낭송− 조미란, 그림전시−이웅일, 도자기출품−정길자, 음악으로바이얼린 송영철, 플롯 김은숙, 클라리넷 김도홍, 길예경, 합창외에 듀엣으로 "8월과 10월"(박철희, 안승윤), "쌍둥이"(이인석, 이인재)

런던 망년회
댄스, 경품뽑기등

런던한인회(회장 하광용)는 12월26일(토) 하오7시 런던시 1 Vanhoe에서 만찬을 곁한 망년회를 연다.

전체 교민 참석을 바라고 있는 이 망년회는 오픈바, 댄스, 경품뽑기등의순서로 진행된다.

(연락처 : 473-5935 하광용)

한국經濟재구축 成果보여

비즈니스위크誌, 다른 東南亞제국과 함께
실질 국민소득 5.5%增·赤字폭은 계속예상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는(11월9일자) 극동과 동남아지역 국가들이 상승한 에너지가격과 대외차관의 2중 충격을 극복하고 경제를재구축하는 노력에서 성과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이지역국가들은 에너지절감생산, 특수기술분야에 대한 투자등과 노동력에 의존하는 생산을 줄임으로써 실질성장률을 작년도의 평균 5.6%에 비해 금년도 7%, 내년 7.6%로 높일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런 경제개선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재정을 실시하더라도 이루어질것이라고 전망되는데 한국의 경우 실질국민소득(GDP)성장은 금년에 5.5% 내년에 6.1%가 될것으로 보인다.

제5계절

뿌리를 찾아 (하)

안토니오·코레아

나는 22살에 측량기사자격증을 획득한후 일자리를 찾으러 고향을 떠나 북부이태리로 갔다. 측량관계로 스위스, 독일, 유고슬라비아등 여러나라를 여행해야했던 그때 폴투갈에 "꼬레아(Corea)"란 성을 가진 가족 몇세대가 산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내마음 한구석에 묻혀있던 「뿌리」에대한 불씨는다시 고개를들기 시작했다.

폴투갈정부에 이 사실에대한 진상을 알아봐 달라고 진정했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그당시 내 나름대로얻은 결론은 나의 조상은원래 폴투갈에서 살지않았나 하는 가설이었다.

이같은 나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사건으로는 17세기경 폴투갈군인들이 남부이태리를 침공, 여러햇동안 이태리가 폴투갈의 지배를 받은 사실이다.

그후 여러해가 지난 67년 나는 캐나다로 이민, 알버타주 캘거리에 정착했다.

어느날 록키산맥을 여행중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를 만났다. 우리는 같은여행자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그랬는지,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 그는 내 성이「꼬레아」라는 것을 알자, 이탈리안이 어떻게 그런 성을 가질 수 있느냐고 놀라며 관심을 가지고 여러가지질문을 했다.

이러한 만남이 있은 후에도 나의 「뿌리」는 폴투갈이라는 믿음에는 변동이 없었다. 그당시 나의 조상이 한국인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다.

68년 온타리오주「수센마리」로 옮겨가 인력훈련계획(Manpower Training Program)이 지원하는 영어학교에 등록했다.

우리반은 20명으로, 그중 6명의 한국인이 있었다.

서로 낯설고 영어도 못했지만 우리는 손짓 발짓해가며 서로 대화를 하며 즐거운 생활을 나누었다.

하루는 선생이 "코리 아(Corea), 이리 와요." 하고 말하자, 놀랍게도 나 외에도 다른 6명의 한국인 학생들이 모두 일어서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놀란채 서로 얼굴만 마주보고 있었다. 더더욱 놀란 이는 선생이었다. "도대체 코리아가 우리반에 몇명이나 되죠?" 선생이 내 성을 불렀다는 것이 확인되자, 우리들은 폭소를 금치 못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은 이후 한국학생들과는 각별히 친해졌다. 그들중 미스타 정은 나에게 가라데 교습을 받으라고 권고하여 그가 사범으로 있는 가라데도장에 수개월 동안 열심히 다녔다. 그는 교습비를 할인해 주고, 무료로 도복을 주는등 친절을 베풀었다.

그러던 중 어느날 밤 그와의 말다툼으로 나는 팔이 부러질 뻔한 곤욕을 치렀고, 그로써 가라데 교습은 끝이 났다. 그러나 멋진 모습의 미스타 정과의 추억은 아직도 내 기억속에 잔재해 있다.

그후에도 나는 많은 한국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 내가 만난 대부분의 한국인들과 나는 서로 존경과 우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들과 사귀면서 나는 자주 한국인들의 특성−공손, 친절, 끈기, 조롱함, 침착함, 솔직함− 에 경탄을 금치 못하곤 했다.

3년전 수센마리에서 토론토로 이주해와 아파트관리인 직업을 얻어 생업에 열중하던 중 1년반전 뜻밖의 손님을 맞이했다.

〈한국일보〉사의 미스터 송이 찾아와 놀라운 사실을 알려 주었다. 1500년경 한국인 한명이 이태리로 갔는데, 그가 「안토니오·꼬레아」이며, 나의 조상이라는 엄청난 뉴스였다. 미스터 송은 이에 대한 여러가지 증빙자료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사실은 나의 생에 일대충격이었다. 이같은 사실이 있으리라고는 도무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니 말이다.

내가 들은 모든 사실을 감당해 내기에는 시간이 요했다. 나는 온타리오주복합문화역사편찬회에 근무하는 김정근씨를 여러번만나 이야기하는중 이같은 뉴스가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한국 신문들도 이같은 역사적 사실을 크게 보도했음을 알았다.

나는 요즈음 자주 나의 조상「안토니오 꼬레아」에 대해 생각한다. 그가 어떤 경위로 이태리에 갔으며, 어떻게 정착할 수 있었으며… 모든 것이 궁금할 따름이다. 앞으로 좀더 이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은 마음 그지없다.

한국일보
533-2361

기쁜 소리
444−4011

강림절

안상엽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과 나라들이 날이 가고 달이 가는 것을 예수의 탄생을 전후로 하는 달력과 연대를 사용하고 있다. 예수탄생 이전을 B.C.(Before Christ), 이후를 A.D.(Anno Domini)라고 표하는데 그 뜻을 "주후"(in the year of the Lord)혹은"서력"이라 칭한다. 11월29일부터 약4주간은, 특히 루터교와 개혁교들이 "강림절"(Advent)로 지킨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뜻하고 있으며, 혹은 "재림"이라는 말도 된다. 성경전체의 내용에 비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의 탄생은 신약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매우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다. 예수의 탄생일이 꼭 일정하지 않고, 사진 한장 없었으니 그의 모습이분명하지 않으며, "글을 땅에 쓰셨다"는 말은 있으나 자서전 하나 없고, 33년의 짧은 생애를 통한 평범한 인간경력은 육신의 아버지를 도운 흔적 뿐이다.

그러나 예수의 탄생은 인간의 역사와 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바꾸는 초점이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만 하고, 저 높은 곳이나 혹은 인간 에게서 저 먼곳에 두고 생각하며 그립기만 한 신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인간에게 오신 분이며, 인간을 아신 주님이시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물론,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도 그 이름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가 어떤 분이며, 나와의 관계가 무엇이며, 무엇을 하셨느냐를 아는것이 중요한 점이다.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신자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으며, 또한 신자의 생활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강림절에 예수를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따라오는 크리스마스도 실상 무의미한 것이다.

예수의 강림은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구체화 된 사건이다. (요 3:16) 사랑은 알지 못하고, 구체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못하면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인 나와 우리를 아셨기에 예수를 보내셨고,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신 것이다. 유태나라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천민들이 사는 고을에서 태어난 사건이 곧 배고픈자, 고민하는자, 늙은자, 갇힌자, 절망과 죽음의 그늘에서 소망과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을 아시고 또한 찾으신 증거인 것이다. 특별히 율법과 권리와 화려한 물질에 억눌려 부자유하고, 사랑이 메말라 껍질만 두텁게 남은 인간들에게 무엇이 있어야할것을 아시고 해결하시는 참뜻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 당시의 도덕가, 법률가, 종교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화시킨 예수를 "세리와 창녀의 친구", "음식을 탐내는 사람", "율법과 규례를 어기는 반역자"등등으로 판단하고 결국은 손발에 못을 박아 사형을 시켰다. 오늘날도 예수의 손발에 못을 박는 사람이 교회안팎에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를 분명히 모르기에 자신의 신앙생활도 잘못할 뿐 아니라, 남의 신앙까지도 잘못 판단하고 짓밟으려 나서는 것이다.

예수님의 오심은 전능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권능과 능력으로 이적을 베푸시는 놀라우신 분, 그리고 면류관을 쓰신 심판의 주로 오심보다는 가장 천하고 약하고, 죽어가는 인생에게 몸으로 오셔서 붙잡으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고치시고, 또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인 것이다.

"강림"이란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오시고, 또한 거기 머무시는 근본뜻이 있기에 솔직한 인간의 자세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진리가 되는 것이다.

(선교교회 담임목사)

대형SALE!

●겨울철이 다가 옵니다
●크리스마스까지 얼마남지 않은 세일기간을 놓치지 마십시요.

미도파 백화점
장추신
B) 536−1692

LISBON AUTO COLLISION INC
이영두, 이건학
533−8507

서울식품
367 PITFIELD RD.
291−8317

킴스카메라및 트로피
김춘탁
534−1085

"한국소설 어제 오늘"(하)

박동규박사 문학강연

(2) 이민사회, 이민문학 대담

강좌가 끝난 후 본보 기자는 박교수와 인터뷰할기회를 가졌다. 다음은 박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문 : 현재 토론토 대학에서 한국문학을 가르친다는데 언제, 어떻게 왔는가? 그리고 가족사항은?

●답 : 금년 9월 초청교수의 자격으로 왔다. 1년간 머물 예정이며, 아내와 두 자녀가 같이 있다.

○문 : 이곳에 와서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같은 것을 느꼈는가?

●답 : 무엇보다도 살아가는 목적이 다른 것같다. 예를 들어, 한국인은 개성을 죽이며, 집단에 동화하는 민족이라면 이곳 사람들은 개성을 살리며 개인주의적 특성이 강한 것 같다. 그러나 가장 개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신념에는 변함이 없다.

○문 : 이곳 대학생들과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답 : 이곳 대학생들은 매우 적극적이고 자기과신을 비교적 잘 일고 있으며, 자기 표현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하고 있는것을 느꼈다. 반면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은 이곳 학생들보다 소극적이며 목표를 향해과감한 돌진보다는 한발 한발 다가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다.

○문 : 한국문학의 해외진출을 위해서 한국문단과정부는 무슨 특별한 계획을 세웠는지?

●답 : 79년이래 한국 문학작품의 번역사업이 활발해졌다. 이미 25권의 한국문학 작품이 번역되어 해외문단에 소개되었다. 앞으로도 계속 번역사업에 박차가 가해질 것이다.

○문 : 캐나다는 복합 문화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다. 각 에트닉 민족의 문학이 소개되고 교류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되지 않는가?

●답 : 나도 동감이다. 기술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문화의 다양성을 가진 캐나다야말로 여러민족의 문학을 소개 발전시켜 궁극적으로는 세계문학을 태동시킬 수 있는 희망도 가질 수 있다.

○문 : 캐나다한국문인협회 진로에 대해 한마디를‥.

●답 : 모국어를 버려야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모국어를 찾겠다는 애착을 볼때 먼저 측은한 감이 든다. 그러나 동협회는 한국문학을 이곳에 소개하고 발전시키는 중대사명을 띠고있다.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라. 앞으로 한국문단과의 교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문 : 선친이 박목월씨 라는데 선친에 대한 소감은?

●답 : 아버님이 이곳에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그 분은 한국인의얼을 간직한 전형적인 한국인이다.

○문 : 이곳 교민들에게 한마디‥.

●답 : 이곳에 산다고 한국적인 것을 다 버릴 필요는 없다. 한국적인 생활양식을 유지하며, 사회 구조원으로는 적극적으로 캐네디언화되는 태도가 바람직하다. 자기 문화의 이해없이 남의 문화를 섭취하면 문화적 고아가 되기 쉽다.

○문 : 끝으로 문학가 로서의 길을 가는데 후회해 본 적은 없는가?

●답 : 나는 여태 내가 문학한다는데 후회해 본 때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 천직이라고 생각하기때문이다.

◆올해의 선수-미국암협회가 「올해의 선수」로 선정한 야구선수 피트 로즈가 트로피를 들고 있다.

수상 2제 (하)

유 인 형(문협회원)

뱀프에서 쟈스퍼로

어느 곳엔 여름 소나기처럼 통쾌한 여울물이 "콰르르 콰르르" 흐른다. 파랗다 못해 눈이 시린 산정호수를 지나면서 여기까지 와있다.

폭포수 사이로 무지개가 피어있고, 또 저 계곡 사이에도 찬란한 무지개가 걸리어 있다. 이 순간 자유와 소망과 기도가 뒤범벅이 되어 있다. 수억만년의 세월 속에 여러가지 암석층을 보여주면서 깊은 계곡이 꾸불꾸불 뻗어 나갔다.

온통 숲속엔 가지가지 형태로 산꽃들이 덮이어 있다. 산꽃은 너무도 애틋하고 소박하다. 저 속세에서 사랑과 미움으로 발버둥치는 모든 욕망을 잊게 하여준다. 아늑하고 아스라한 경치속에 야생동물들만 유유히 거닐고 있다. 산양을 사진 찍느라고 도로가 차단되기도 하고, 뜻아닌 흑곰의 행차에 모두들 긴장을 한다. 먹이를 주지 말라는 경고를 상기했다. 저 미욱한 녀석이 더 달라고 손을 내밀면 약해빠진 사람 목숨쯤이야 순간에 밟혀버릴 수도 있다.

사람처럼 섬세하고 다루기 힘든 생명이 또 어디 있을까. 그렇지만 이곳에선 모든 생물들이 서로 악수를 하고 있다. 다람쥐나 사슴들도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가깝게 지낸다. 욕망을 버린 이해와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다. 만약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간다 하면 바로 소유욕을 떠난 생명들의 만남인 이런 곳이 아닐까. 멀리 푸마가 낮잠을 자는게 망원렌즈에 잡히었다. 두 마리의 새끼는 고양이와 같다.

다시 또 달린다. 가도 끝없는 수림에 청자빛의 황홀한 어울림이 스며있다. 어느 곳에는 엷은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린다. 천사들이 타고 오는 듯한 솜구름 사이로 빛줄기는 은혜의 손길같다.

아름다운 본질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아름다움을 찾는 마음, 아름다움을 나타내고자 하는 창작의 몸부림, 아름다움을 향한 한폭의 그림 속에 작은 점 하나가 서있는 것같다. 점은 수많은 점을 만들면서 하나의 선을 연결시키고 있다. 점과 선과 그리고 공간에 관람자같은 나그네의 영혼이 흐른다. 찌들고 고달픈 생활 속에서 관조와 명상의 거리를 안겨주는 여행은 하나의 희열이다. 안에서 차분하게 흘러 넘치는 환희다.

이제 차를 세우고 까마득한 계곡을 내려다보고 있다. 노을이 애틋한 정열로 감싸오고 있다. 물결처럼 그렇게 자꾸만 다가선다. 뿌듯해지는 감동이 있다. 소속되어 있는 집단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외로움이 찡하게 코끝을 건드린다. 노을속에는 인간의 지혜나 교만으로써는 어쩌지 못하는 불가해가 있다. 완성된 고요나 평화보다는 미완성의 슬픔과 격동이 더 좋아진다. 이런 곳에선 아무와 만나도 말없이 흐뭇해질 것같다.

어디서인가 산탉이 우는가. 에델바이스를 만지작거리며 후회와 연민을 망각하려 한다. 달뜨는 계곡은 가슴을 후벼파는 낯설음이 있다. 노을도 지었고, 별들이 보여온다. 아름다운 색조와 아름다운 음향으로 주변은 도취되어 있다.

풀꽃 위에서 일어선다. 미움이란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또 없어진다는 간단한 진리를 깨닫는다. 모든 게 마음 하나에 달려있다. 아무런 부담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란 바로 뱀프에서 쟈스퍼까지 달리는 이곳의 낭만과 같을 것이다.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 누구인가 호응하는 소리, 뚜렷한 이유도 없이 즐거워지는 이 향기 속을 다시 달려간다. 거짓과 불신이 없는 곳이 바로 이 공원과 같은 신뢰의 건강함이 아닐까!

마음의 그릇이 커지고 생명들이 즐겁게 만나는 럭키산맥을 지나고 있다. -끝-

교민동정

◆성태하(캘가리 Depot 경영)=12년간의 토론토 생활을 청산, 6개월전 캘가리로 이주하여 Depot(정부납품 고물상) 2개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종업원수 만도 20명(전화 집 캘가리 261-6848).

성씨는 토론토 시절 한인회교육부장, 동우회 선거관리위원장직을 역임 했다.

◆황성현(런던 부동산중개업)=11월 들어 런던의 부동산회사 Century 21에서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일을 시작했다.

주간女性

移民과여행자를위한 생활英語

HE JUST STEPPED OUT

이민온지 얼마되지않은 어떤교포는 전화벨소리만 들리면 가슴이 떨려오고 그렇다고 안받자니혹시 무슨 긴급한 연락일수도 있어서 안받을수도없어 큰일이라고 하소연을 해오셨는데 역시 영어로 전화통화를하는것은 쉬운일만은 아니다。전화가 걸려왔을때 「지금 방금 나가셨읍니다」라는 말을 표현하는데 He went out right now. 하기쉬우나 그대는 He just stepped out. 이라고한다。

이때 step은 걸음걸이이니 직역하면 방금 걸어나갔다는 뜻이다。또한 Step을 사용하여 계단같은곳에서 발걸음을 조심하라고 하는경우는 Watch your step·라고 하면된다。

A : Good morning. Edgewater Hospital.

B : Hello. Is Jane Brown there?

A : I'm sorry, but she just stepped out of the office.

B : When do you expect her back?

A : She should be back in a few minutes. Will you hold?

B : No, thanks. I'll call again later.

A : 안녕하세요。에지워터 병원입니다。

B : 여보세요。제인 부라운 좀 부탁합니다

A : 미안합니다만, 이제 방금 사무실에서 나가셨는데요。

B : 언제쯤 그녀가 돌아올것 같나요?

A : 곧 돌아올겁니다。기다리시겠어요?

B : 아뇨, 감사합니다。잠시후 다시 전화하겠읍니다。

※주 : Will you hold? : 기다리시겠어요? Will you wait?와 같은 뜻이다。

본 ... 민병철 생활영어 책은 이중언어 교육처및 교부들의 영어교육처 수곳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본 캐나다·뉴욕 미국지역의 한국일보 한국의 일간스포츠에 연재되고 한국의 MBC 문화방송에서 방송되고 있으며 책의 내용을 전부 녹음한 카세트에는 「복수발음교정법」이 한국말및 영어로 수록되어있음. 또한 한국및 미주사상최초로 제작된 「영어회화 비디오」는 미국현지 생활 현장을 촬영하였으며 생활영어와 발음교정에 중점을 두어 편집되었음.

구입처

B. 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 S. A.

전화 : (312) 966-4050

책 : 제1권(12불) 제2권(12불) 제3권(12불)

카세트 : 1권용(33불) 2권용(38불) 3권용(38불)

비디오 : BETA(60불), VHS(65불)

※U. S. 머니오더에 한합니다.

민병철생활영어 1, 2, 3권 책, 카세트, 비디오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선금)연 $90. 월$8.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 새벽 1 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 : 531-0277

대표 나옥녀 올림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O.K. Auto Bo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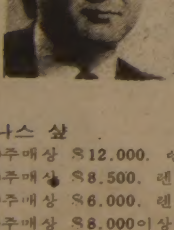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쪽쉬는 비지네스(주5일)

TAKE OUT 카프테리아 SHOP(아침7~저녁5시)

주매상 : $5,500 아스킹 : $18,950 네트 : 년 $120,000

렌트 : $1,000, 리스5년+5년 다운페이 : $150,000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좋은 비지네스

● 도나스 샵

①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9년(옵션가능). 현금 $250,000Down. 아스킹 $385,000

②주매상 $8.500. 렌트 $2,900. 리스9년+5년. 다운페이 $150.000. 아스킹 $295,000

③주매상 $6.000. 렌트 $2.650. 아스킹 $190.000(현금이면 기만불 디스 카운트. 리스20년

④주매상 $8.000이상(시외). 렌트 $1.700. 리스 19년. 현금 12만불 다운페이. 아스킹 $25만.

● 버라이어티

①주매상 $8,500. 리스9년+5년. 렌트 $900. 아스킹 11만5천달러(로타리오 인접 월1000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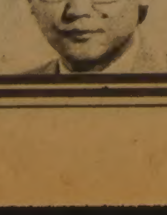
~~②주매상 $12,000. 리스9년. 렌트 $1,850. 아스킹 15만9천달러~~ SOLD

③주매상 $7,000. 리스15년. 렌트 $950. 아스킹 7만5천달러(플라자 내)

주소 : 609 BLOOR ST. W.

B) 535-1251. R) 536-4250

세일즈맨 신 영 하



PRESENTING THE ONE AND ONLY……

칸투 가구점은 진실로 당신의 가정을 가장 현대적이며, 또한 고전적인 분위기를 만들수 있는 조건을 갖춘 가구점입니다. 북미의 최고 유명가구점으로 부터 수입된 전통적인 조화미, 유럽전문가의 현대적이고 뛰어난 디자인및 고급재료.

이러한 모든것을 칸투 가구점을 보여 드리고, 당신의 가정을 꾸밀것입니다. 옆에 보여드리는 그림은 현대적 놋쇠 침대로 이태리로부터 수입되었읍니다. 거울을 같이 조화를 이루지요.

● 토론토 최대 가구점중의 하나(고급수입상)

● 최고의 이태리안 디자이너가 설계제작된가구

● 3층건물 전체가 온갖종류의 가구를 구비한 SPECIAL STORE

● LARGE SELECTION(40000 sq.)

● 아프터 써비스 보장

● 최고급 질을보장

※뒤에 충분한 파킹장이 있음.

CANTU FURNITURE & INTERIORS LTD.

2562 EGLINTON AVE. W. (에그린톤×킬)

TEL : 653-3353~4

cantu interiors

稅法협상 幕後절충 活潑

與野、豫算삭감등 政治的타결 모색

人的공제 引上에 긍정적 民正
教育稅 적극반대서 후퇴 民韓
法人稅21%、教育費공제대상70만원 접근

새해豫算案규모 삭감과 稅法개정협상을 一括妥結키로한 방침에 따라 국회財務委의 與野稅法小委員들은 21일 各稅法의 중요爭點에대한 幕後접촉을 가진데이어 일요일인 22일에도 접촉을 갖기위한 일련의 절충을 계속할예정이다。民正黨의 한고위소식통은 21일「그동안 稅法小委에서 합의를 보지못한 교육세를 비롯하여 소득세의 人的控除額 인상문제와 法人稅率、특별소비세율등 與野간에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이고있는 문제稅法에 대해 정치적 幕後절충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절충이 週初까지 계속될것 같다」고 전망하고「稅法小委활동 時限인 25일에 가서 예산안삭감조정과 함께 협상이 매듭지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稅法개정을통한 歲入면이나 歲出예산 삭감에서 民正黨은 4백50억원내지최대 1천억원 가까이까지 고려할수있다는 신축성있는 태도로 협상에 임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1천억원線을 내세우고 있는 民韓黨등 野黨도 삭감 목표액을 크게 낮추는 수준에서 최종협상할 움직임도 있어 어느정도 의견 접근을 볼것으로 전망된다。

국회財務委의 한 소식통은 이날 그동안 중요쟁점부분에 대한 의견접근에 언급、教育稅 신설안의경우 국민、議政동우회는 종래의 稅신설 반대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분명히하고있고、民韓黨의경우도 종래의 적극적인 반대입장에서 찬성을 하지않겠다는 소극적인 견해를 보이고있다고 전했다。

또한 소득세법중 人的控除額、법인세율에 있어서 현행11%선과 정부안 23%선을 고집하던 民正黨측도 야당측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소식통은『현재 民正黨측은 소득세 人的공제액을 현행11만원에서 1만원인상시킨 12만원선을 신중히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안다』고전하면서 그러나 人的공제액을 인상시킬경우▲국민 皆稅원칙에 어긋나 租稅체계자체가 흔들리고▲1만원 引上에 무려 7백80억원의 세수결함을 초래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중이라고밝혔다。

이 소식통은 또 教育稅에 있어서 야당측이 가장 큰 반대이유로 내세웠던 財産稅에 附加방법이 철회된만큼 심의과정에서 贊·反의사만이 표시된채 통과될것으로 樂觀했다。

이소식통은이어▲법인세율에있어서는정부案 27%와 民韓黨案 20%에서 21%선으로 접근을 보고있고▲신설되는 교육비 控除額의 대상은 月급여 70만원선으로▲근로소득공제액은 정부안 下限線 82만원、上限線 1백50만원을 88만원~1백70만원선으로▲소득세율은 정부안 最低6%~最高58%를 6%~60%선으로▲私立大 부속병원 기부금의 損金산입을 非과세처리하자는데 의견을 접근했다고 덧붙였다。

구분		현행	政府案	民韓黨案
소득세	人的控除	月11만원	현행대로	月17만원
	障碍者控除	月1만원	月2만원	月2만5천원
	日用근로공제	日當 1만3백원	日當 1만3천7백원	日當 1만5천5백원
	償與특별공제	年 52만원	최저82만~최고150만원	최저82만~2백만원
	종합소득세율	6%~62%(17단계)	6%~58%(17단계)	4%~60%(18단계)
	근로소득공제	없음	新設 20만원이하20% 30만원이하10%	新設 30만원이하20% 50 " 10%
	교육비공제	없음	新設	新設
租稅減免規制法	法人의 最低稅率	면제	5%	10%
특별소비세	小型컬러TV	40%	30%	20%
	소형냉장고	40%	30%	20%
	피아노	그랜드型 20% 기타 10%	그랜드型 30% 기타 20%	그랜드型 30% 기타 10%
法人稅	稅率	法人別구분(20%~40%)	현행대로(20%~38%)	단일세율(15%~33%)

◇稅法협상의 主要爭點

西獨·蘇 오늘 頂上회담

유럽軍縮·經協문제등 협의

【본20日頭=聯合】 레오니드·브레즈네프 소련 최고회의 간부회 의장겸 공산당서기장이 오는 22일부터 4일동안 서독을 방문、헬무트·슈미트 수상과 소련·서독 정상회담을 갖고 유럽군축과 양국간의 경제협력문제등을 중점협의한다。

슈미트수상은 지난10년만에 세번째로 서독을 방문하는 브레즈네프서기장을 맞아 최근 東·西양진영간에 최대쟁점으로 부각되고있는 유럽핵미사일의 감축과 소련의 對서독천연가스공급등 광범위한 정치·군사문제를 논의할것으로 보인다。

서독정부소식통들은 슈미트수상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토의 기본정책과 그배경등을 설명하는 한편 오는30일 제네바에서 개막되는 美·蘇군축회담에『진지하게 임해줄것』을 소련측에 촉구할것이라고 전했다。

가스供給 25년協定도 체결

【본(西獨)20日UPI=聯合】 서독은 20일 東·西무역거래사상최대규모가될 연간 1백5억㎥의 소련산천연가스를 25년간 도입하기로하는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서독의 최대천연가스회사의 하나인 루르가스社는 이날 에센에서 소련정부의 대외무역차관 니콜라이·오시포프와 소련의 야말반도에서 서독에 이르는 총연장4천5백㎞의 가스수송용 파이프·라인을 설치、소련의 소유즈천연가스수출회사로부터 연간 1백5억㎥의 천연가스를 25년간 도입하기로하는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독과 소련의 이같은 천연가스거래협정은 총4백억㎥의 천연가스를 매년 서유럽국가들에게 공급하기를 희망하고있는데 소련의 천연가스가 앞으로 오스트리아·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벨기에 등에도 공급될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프랑스회사들은 이파이프·라인설치에 필요한 강관·컴프·콤프레서의 일부를 제공하는 주요계약들을 따냈다。

서독과 소련의 이번가스공급협정을 위한 협상은 지난 15개월동안 계속돼왔으며 협상을 오래끌어온 가장큰장애요소는 가스도입 가격이었는데 이번협정의 체결은 가격문제에 합의가 이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韓·日 冷却관계 改善추진

日、改閣후 外相회담 安保經協 재론

【東京21日=宋孝彬특파원】 일본의 집권자민당을 비롯한 여·야는 월말에 단행될 개각을 계기로 60억달러의 경제협력을 에워싸고 냉각된 한·일관계를 타개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스즈끼수상은 오는30일 당3역을 비롯하여 내각을 개편、소노다외상은 경질하고 후쿠다파의 아베(安倍)정조회장을 기용、현안문제인 한·일관계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야스이(安井謙)한·일의원연맹회장은 20일 스즈끼수상을 방문、월말 내각개편후 냉각된 한·일관계를 타개하기위해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전환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스즈끼수상과 야스이회장과의 회담에서 교착상태에빠진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한국정부가 제시한 60억달러의 對韓 경제협력문제에 관해 가까운 시일내에 외상회담을 재개할것을 검토한것으로 보인다고 이소식통은 전했다。

민사당의 사사끼(佐佐木)위원장도 내각개편직후인 12월2일 한국을 방문、全斗煥대통령을 면담하고 한일 우호증진을위한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며 신자유구락부도 내년정초 친선방한단을 보낼예정이다。

韓·말聯새航空협정

【쿠알라룸푸르21日=聯合】 말레이지아와 한국은새로운 항공운수협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리·산춘 말레이지아 운수상이 21일 말했다。

리운수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말레이지아 대표단이 곧 서울을 방문、이 협정에 공식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送年 새 短篇소설

『내 발에 등불』

우리들속의 平凡한 戀人이야기

20代女流作家 梁貴子씨執筆·金光培씨그림

◇金光培씨 ◇梁貴子씨

24日字부터 連載

한국일보社는 이 겨울을 따뜻하게 데워줄 20代여류작가의 단편소설을 연재합니다。 한해를 접는 送年을 위해 마련한 이 단편소설 연재는 여류소설가들의 싱싱한 감각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24일자부터 여러분과 만날 첫소설은 26세의 才氣滿滿한 작가로 각광을 받고 있는 梁貴子씨의 작품「내 발에 등불」입니다。

「내 발에 등불」은 겨울의 차가움을 딛고 아름답게 일어서는、바로 우리들속의 평범한 戀人들의 이야기입니다。 梁貴子씨는 24세에 月刊「文學思想」의 新人賞을 수상한 유능한 女流로 특히 아름다운 心理묘사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고 있읍니다。「내 발에 등불」의 삽화는 金光培씨가 맡아 수고하게 됩니다。

한국일보社

◇美F16機、카이로까지 논스톱飛行

이집트공군조종사들이 20일 카이로 서부공군기지에서 美·이집트합동군사훈련참가를위해 美본토에서 카이로까지 논·스톱으로 비행해온 美F16전투기를 살펴보고있다。【카이로20日AP電送=聯合】

民韓、새해豫算5천억원 줄이기로

削減 우선順位확정

民韓黨은 21일 정책심의회 국회豫決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중 일반歲出에서 삭감키로 한 5천억원의 各部門別최종內譯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는 예산삭감의 기본방침으로 ▲一般會計및 特別會計의 赤字요인을 해소하고▲각종 出捐金、補助金、借入金을 81년 수준으로 유지하고▲공무원 처우개선비(人件費·物件費포함)를 근로자 임금상승률인 10%선으로 억제하기로 하는한편 예산삭감의 우선순위를 마련했다。

예산삭감의 優先順位는 經常歲出예산의 경우 ①행정개혁으로 폐지된 기구의 歲出예산자동삭감 ②人件費중 급여、상여금、정액수당을 제외한 常用피복비、給糧費의 물가상승비 초과분을삭감 ③物件費중 각종 판공비、정보비등은 81년 수준으로凍結 ④민간에대한 經常보조중 財形저축가입 공무원에대한 임의장려금、年金지급을 제외한 나머지費目은 81년 기준으로凍結 ⑤資本형성비중 土地買入費、借款물자 용역대를 제외한 나머지 費目은 81년 수준으로凍結 ⑥出捐金중 中小기업출연금、에너지개발、수출보험금、근로자 직업훈련、과학기술개발등을 제외한 소비성、중복성경비는 대폭 삭감하거나 81년 수준으로凍結 ⑦豫備費는 예산회계법상의 한도(上限線) 초과분을 전액삭감 ⑧기타 특정경비(새마을운동비)중 생산및 소득증대등 경제성경비가 아닌 소비성 경비는 전액 삭감한다는 것등이다。

또한 경제개발비중에서는 ▲에너지개발、防衛관련산업、개발수입투자、서민대책(觀光사업등)인구대책등을 제외한 新規사업、觀光사업、정치성 공약사업▲일반회계 轉出金중 鐵道사업 특별회계 損益計定 轉出金、通信사업특별회계轉出金등은전액삭감▲公共性이미흡하거나 正當化가 가능한기관에 대한 出捐예산삭감▲특별기금에 대한 일반회계轉出또는 출연금도 당해사업의 업종、사업성등을 감안해 삭감하는것등이다。

民韓黨이 마련한 구체적인 삭감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人件費·物件費(3백억원)▲人件費중 常用피복비、給糧費(81억7천3백만원)▲物件費중 일반用費(3백억원)▲판공費및 정보費(5백5억8천9백만원)▲보조금(2천2백억원)▲민간자본보조費(2백80억9천만원)▲補塡金(2천72억원)▲출연금(4백94억7천3백)▲자본형성費(1백억원)▲출자금(69억원)▲기타(3백40억원)▲예비비(1백억원)▲기타 경비 …

3黨職者 辭表수리

국민、人事波動수습

국민당의 人事파동은 金鍾哲총재가 21일 李弼雨재정위원장과 林德圭부대변인、金翰宣黨紀委 부위원장의사표를 수리함으로써 보름만에 일단 수습됐다。

李弼雨의원은 지난7일 재정위원장으로 임명됐으나 人事에 불만을 품은 黨소속의원들의 반발에 부딪쳐 사태수습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었고 林前부대변인과 金당기위부위원장은 당직개편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黨職사퇴서를 제출했었다。

전국구출신인 李弼雨의원은 서울江南지구당조직책으로 내정됐고 이번 人事파동의 대상이 됐던 李成一대변인은 유임됐다。

아세안諸國 言論人 10명초청받고 來韓

한국과 아세안간의 연례적인 언론인 교류계획에 따라 아세안5개국 언론인 10명이 21일 訪韓했다。

문공부는 인도네시아、말레이지아、싱가포르、泰國、필리핀등 아세안5개국과의 협력시대에 있어 언론인간의 대화를 年例化한다는 계획에 따라 각국에서 2명씩 10명을 초청했었다。

韓美通商 百周기념82년5월

뉴욕州「友好의 달」로 선포

【뉴욕20日=聯合】 휴·캐리 뉴욕주지사는 20일 한미통상우호조약체결 1백주년을 기념하여 82년5월을『뉴욕주와 한국간 우호의 달』로 선포했다。

캐리지사는 이 우호의 달 지정을 선포하면서 이는 한국과 뉴욕주간 우호관계및 통상·문화교류증진강화를 위한 뉴욕주의 관심을 의미하는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金世珍 뉴욕주재영사는 한국과 뉴욕주간의 우호의달 선포를 기념하는 리셉션을 베풀었다。

統一문제 學術회의

雪嶽山호텔서 개최

평화통일정책 자문회의주최 통일문제 국제학술회의가 金貞烈자문회의 수석부의장、李範錫국토통일원장관、金相球사무차장과 국내외학자 18명이 참가한가운데 21일상오 雪嶽山파크호텔에서 개막됐다。

오는23일까지 계속되는 학술회의에 참가한 외국인학자는 도널드·프찰러(美홀링비大)、오란·영(美메릴랜드大)、도널드·웨더비(美사우드캐롤라이나大)、토머스·페퍼교수(허드슨연구소)와 사또·세이자부로교수(東京大)등이다。

한국일보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社會漫評

"안색이 벌써 좋아졌다…"

地平線

겉으로「장이야、멍이야」한다고 실속계산도 그렇다고 말할수는없다。 아프가니스탄과 폴란드를 둘러싸고 서로 주먹을 휘두르려 보이고있는 소련과 서방측이 전후최대의 흥정을 벌이고있는 것도 마찬가지 아치다。 이흥정은 자그마치 1백억달러(6조9천억원)에 이르는 천연가스용파이프·라인공사계약이다。 소련의 천연가스창고인 서부시베리아에서 체코슬로바키아국경에 뻗치는 것이다。

▼서부시베리아에서 서쪽으로 뻗은 파이프·라인은 지금 3개가있다。 1호선과 2호선은 체코국경까지 뻗은것이고 3호선은 짤막한국내선이다。 지난9월29일 새벽 서독 본에서 최종적인 합의를 본 5백㎞에 이르는 파이프·라인공사는 그러니까 4호선 공사가 된다。 우렌고이에서 우랄산맥을 넘어 체코국경까지 엄청난 役事가 될것이다。

▼이엄청난 흥정은 6년동안 뜸을 들여、1년반이나 옥신각신끝에 지난9월 말 원칙적인 합의를 본 것이다。 마지막 흥정을 위해 퀼른에 온 소련구매대표단만 30여명이었다。 막대한 강철파이프에서 터빈을 장치한 콤프레서·스테이션에다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서유럽의 공업기술이 총동원돼서 참여하고있다。 강철파이프는 4~5백만톤、콤프레서·스테이션은 42개나 된다。

▼찬바람이 불고있는 미국과 소련사이지만 이중 콤프레서는 대부분 미국 제너럴·일렉트릭의 기술로 이루어지게 된다。 터빈을 둘러싸고 영국의 명문 롤즈로이스가 경쟁에 나섰지만 소련은 고도의 기술이 있어야되는 영국제보다 미국쪽을 택했기 때문이다。 이공사는 84년까지 한쪽선을 끝내고、86년까지 또한쪽을 끝내는 복선공사로 진행될계획으로 있다。

▼큰 공사인만큼 서방측 기술도 기술이지만 돈도 대게된다。 예를들어 서독의 14개 은행은 차관단을 구성해서 약21억달러를 댈 작정이다。 10년만기로 된 계약에 따라 소련은 이돈을 80년대 중반부터 천연가스로 갚게 된다。 이런식으로 소련은 공사가 끝난뒤 한해 4백억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서유럽각국에 팔 작정이다。 미국이 걱정하는것은 바로 여기에있다。

▼미국의 카터전행정부는서유럽이소련의 천연가스에 매달리게돼선 안된다고 이계획에 강력하게 반대했었다。 그러나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시달린 데다 불경기가 심한 서독등 각국은 공사도 따내고、에너지도 얻겠다는 생각을 굽히지않고있다。 서독은 이계획에 따라 소련과 새로운 가스구매협정까지 맺었다。 소련으로서도 올들어 작년의 2배로 된 서방측과의 무역적자를 메우는 노다지판이 될것이다。 장이야 멍이야 뒤에 누이좋고 매부좋은 흥정이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종합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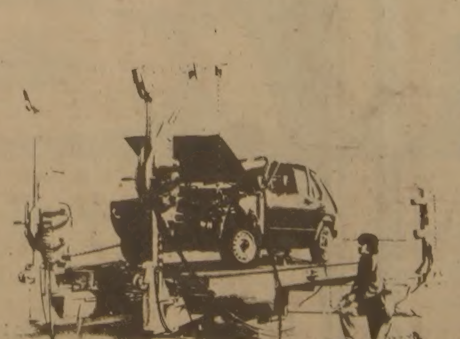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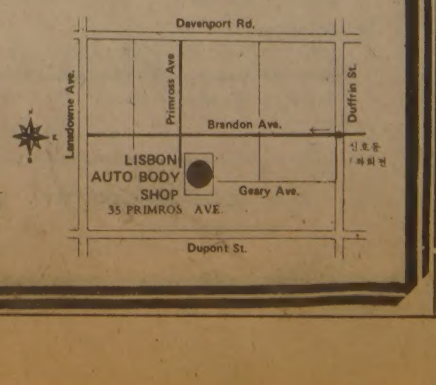
서울 여행사
IATA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국내·국제 항공표 일체
●이민·방문 초청 안내
631A BLOOR ST. W.
535-6004, 8801
293-9970, 5823
최 동 주

개업특별봉사

*A. CLASS LICENCE BODY MAN
*A. CLASS LICENCE PAINTER
*GUARANTEE WORKMAN SHIP
*사고후 보험처리
*OVEN BAKED FINISH
*COMPLETE BODY WORK
*TOWING써비스
*수리중 차대여



●교민 여러분께 개업특별 써비스!
●능숙한 기술과 철저한 신용으로 봉사
●수리후 문제점에 대한 책임보증
이 영 두, 이 건 학



LISBON Auto Collision Inc.

주소 : 35 PRIMROSE AVE. TORONTO M6H 3V1
전화 : 533-8507, 533-8508(B), 439-6548, 266-8925(R)

LISBON AUTO COLLISION INC.

波학생데모 高校로 擴散

勞組에 同調…일부校 盟休돌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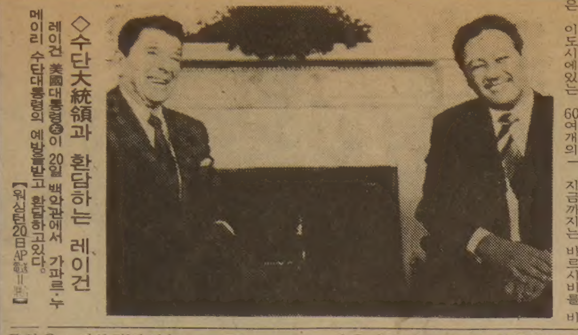
政府선"청소년 誤導"비난

【바르샤바20日UPI=聯合】폴란드학생들의 데모사태는 20일 지금까지의 대학규모에서 고등학교로 까지 확산되기 시작했다.

폴란드문화중심지인 동부 루블린시의 자유노조대변인은 이도시에있는 60여개의 고등학교학생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지방정부당국이 거부할경우 동맹휴학을 감행하겠다면서 맹휴준비태세에 돌입했으며 2개고등학교는 이미 실질적인 맹휴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바르샤바를 비롯, 각지방도시의 대학들만이 자유노조의 對정부투쟁을 측면지원하기위해 시위를 벌여왔는데 오는24일까지 전국1백5개대학이 모두 맹휴를감행할 태세를보이고있으며 이날현재 약30개대학이 농성을 계속중이다.

폴란드정부는 학원데모사태가 고등학교로까지 확산되자 자유노조가 이같은데모를 배후조종하고 있으며 폴란드청소년들마저 자신들의 불법투쟁에동원, 이들을 파멸의길로 오도하고있다고비난했다.



◇수단大統領과 환담하는 레이건
레이건 美國대통령㊧이 20일 백악관에서 가파르·누메이리 수단대통령의 예방을받고 환담하고있다.【워싱턴20日AP=聯合】

사우디王子 비밀리北京방문

外交關係수립위한 幕後活動

【北京20日UPI=聯合】사우디아라비아왕실의 왕자 한명이중공과 사우디간의 외교관계수립을위한 막후활동의 일환으로 최근 은밀히 北京을 방문했다고 北京의 외교소식통들이 20일 밝혔다.

사우디는 주요 아랍국가운데 유일하게 중공을 승인하지않고 있으며 특히 사우디정부의 親臺灣정책이 양국국교수립의 최대장애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 소식통들은 사우디-중공간의 국교수립협상이 어느정도 진척되었는지는 분명치 않으며 또한 사우디왕자 중누가 北京을 방문했는지도 확인치 않으나 파흐드 사우디 황태자가 명년에 중공을 방문할 것이라는 시사가 있다고 말했다.

蘇, 美보다 2年앞서

인공위성 邀擊기술

【스톡홀름20日聯合】소련은 인공위성을 요격, 파괴하는 기술에있어 美國보다 약 2년앞서있다고 한 우주전문가가 20일 말했다.

로잔대학 이론물리학연구소의 알랑·댕 박사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주최한 4일간의 우주전문가회의에 참석한뒤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어느나라도 지구주변궤도를 선회중인 인공위성을 파괴시키지 않았으나 소련이 그러한 능력을 갖고있는것으로 보인다면서 그같이 말했다.

"앨런 時計2개도 받았다"

美관리是認 인터뷰주선댓가…公職관 무관

【워싱턴21日時事=聯合】미국정부 관리들은 20일 레이건 대통령의 부인낸시여사와일본기자들간의 인터뷰를 주선한 리처드·앨런 대통령안보담당보좌관이 2개의 손목시계를 사례명목으로 받았음을 시인했다.

그러나 이 관리들은 앨런보좌관이 시계를 받은 것은 그가 보좌관직을 맡은 금년 1월20일 이전이기때문에 공직수행과는 아무런 관련도없는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관리들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1월16일과 21일에 각각 시계 한개씩을 전달했다는 인터뷰 당사자 사까·후유꼬 기자의 주장과 맞지않은 것이다.

그는 인터뷰주선에대한 사례로 앨런보좌관에 싯가3만엔짜리 시계2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미관리들은 앨런 보좌관이 받은 시계는 일본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통역을맡았던 다까세·시즈꼬여사와 그의 남편이자 앨런보좌관의 오랜친구인 다까세·다모쓰교수로부터 받은 단순한 선물이었다고 설명했다.

蘇, 對美압도적우세

중거리核 공격력

【워싱턴20日AP=聯合】미국무성은 소련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레이건 美대통령의 지난 18일 對蘇새군축안 내용을 뒷받침하는 새정보를 제시했다.

국무성은 이날 유럽의 美·蘇핵무기현황을 밝히는 새정보에서 미국은 유럽에 핵공기 5백60대를 배치하고 있으나 중거리핵미사일은 1기도 갖추고 있지않은 반면 소련은 3천8백25개의 미사일및 핵공기를 유럽에 두고있다고 밝혔다.

국무성은 또레이건 대통령이 지적한『6대1』의 비율에는 동서양진영동맹국들의 무기들은 포함돼있지 않다고 말하고 이를포함시킬 경우에도 소련은 중거리핵공격력에 있어 여전히 압도적 우세를 과시하고있다고 덧붙였다.

제네바 軍縮회담서

蘇, 레이건提議탐색

【모스크바20日AP=聯合】소련은 유럽배치 중거리핵미사일을 완전 제거하는「0의 선택」등 레이건미 대통령의 4개항군축제의에 아직회의적이나 오는30일 개막되는 제네바군축협상에 임하여 제의의 상세한내용을 파악할 용의를 갖고있다고 바딤·자글라딘 크렘린 대변인이 20일 밝혔다.

佛紙, 미테랑에화살

社會改革法令 비난

【파리19日AP=聯合】거의 대부분의 프랑스신문들은 19일 몇몇 사회개혁들에 박차를가할목적으로 이를 법령으로 가속화시키는 프랑스와·미테랑사회당정부결정이『권위주의적』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海外토픽

肝炎백신 量産길터

★日연구진유전자공학利用

일본의 국립암센터연구소는 최근 유전자공학을 이용, 대장균으로부터 B형간염바이러스를 구성하고있는 단백질의 일부를 만들어 내는데 성공한것으로 21일 보도되었다.

이 단백질은 B형간염예방을 위한 백신으로 사용할수 있기때문에 이번성공은 대장균에의한 백신양산의길을 개척한것이라고 보도들은 전했다.

B형간염은 간염중에서도 치료가 어려워『21세기의 국민병』으로 불려지고 있으며 간경화와 간암으로 발전되는 난치병중의 하나이다.【東京21日時事=聯合】

美서 新品種밀개발

★재래종보다 단백질 2倍

미국 미주리대학의 제임즈·D·워스텔 교수는 19일현재 재배되고있는 밀보다 양질의 단백질성분을 거의 두배나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신품종밀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워스텔교수는『슈퍼·휘트』(최고급밀)로 명명된 이신품종밀이 지금까지 재배돼온 각종 밀보다 영양가가 훨씬 많아 가축사료용이나 식생활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줄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콜럼비아20日UPI=聯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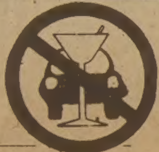
인슐린장치 體內에

★유고서 내달에 첫시도계획

당뇨병환자들이 멀지않아 주입주사기대신 체내에 장치되는 심장박동 보조기와 매우 유사한 체내이식장치를 통해 인슐린을 공급받을수 있게될것으로 알려졌다.

유고슬라비아의 자그레브 당뇨병연구소가 오는12월 한 환자에게 처음으로 시도할 이 소형 인슐린공급장치 시험이 성공할경우 이환자는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인공인슐린 공급 장치의 체내 이식자가 된다는것.

인슐린펌프와 매우 흡사한 기능을 가진 이장치는 필요시 신체에 인슐린을 공급해주도록 팔목피부밑에 삽입되며 작동에 필요한 동력은 배터리로부터 받는다.【마드라스(印度)=PTI】



棄·迷兒뒷바라지 19년

—목련장받은 堤川영아원장 화이트孃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받은 堤川영아원장 제인·화이트(46)양。

27세때 선교活動차 來韓… 5百여명 돌봐

外國입양만 3백40명…외길삶, 결혼도포기

【堤川=聯合】벽안의 처녀로 한국에와 19년동안 5백여명의 기아와 미아를 키워낸 堤川영아원 제인·화이트원장(46·충북堤川市明西洞94)이 지난 17일 全斗煥대통령으로부터 영예의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27세의 젊은나이로 선교활동을 하러왔다가 버림받은 아이들을 보고 돌아설수 없어 결혼도 포기한채 堤川에서만 19년동안 아이들과 함께 생활해온 제인·화이트원장은 훈장을 받고 감격,『나는 계속 이길을 갈것』이라고 말했다.

화이트원장이 그동안 키워온 기아·미아는 주로 5세미만의 어린이들로 현재까지 3백40명을 외국양부모에게 입양시켰고 85명은 생부모품에 돌려주었으며 현재는 75명을 키우고있다.

美國 위스콘신주가 고향인 화이트양은 월드아우트리치 선교회 선교사로 지난62년 5월 내한, 선교활동을 하면서 堤川에 들렀던것이 영아들과 인연을 맺게된 시초였다.

화이트양은 堤川이 지리적인 여건으로보아 강원도 관문이며 忠北, 太白, 中央線이 교차되는 교통의 중심지로 기아, 미아가 많은 것을 보고 이들을 맡아기르기로 결심했다는것.

65년5월 堤川에 정착한 화이트양은 아이들을 키우기위해 美國의 친척들과 독지가들의 후원으로 지금의 영아원 明西洞91번지 대지1천75평에 연건평 1백18평의 건물을 마련했으며 그후부터 매년 堤川市로부터 연간 1천6백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으며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

한국、東亞의 新興공업국

아랍紙 GNP6~7%늘듯

【매나마(바레인)=聯合】빅토리아시대의 미덕으로 유럽에서는거의 잊혀지고있는 절약과 自助, 그리고 근면이 세계에서 가장 신속히 경제성장을이룩한 나라중의 하나인 韓國에서 꽃피고있다고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한 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두바이에서 발간되는 英字신문으로 UAE와 바레인에서 널리 읽히고있는 타임즈紙는 이날 韓國경제에 관한 장문의기사를통해 韓國은 西方국가들이 일반적으로 믿고있는것과는 반대로 문명의나라, 학대받는 출리의나라가 아니라 4천만인구를 가진 기강이 고도로 수립된 나라, 현세대가 어떤댓가를 치르더라도 大國대열에 끼어들려는 결의에 차있는 나라라고 전했다。

이신문은 최근 韓國을방문했던 이신문의 패트릭·실기자가쓴「孔子와 스크루지, 韓國의 操舵席에」제하의 이기사에서 또 韓國이 동료走者인 臺灣과마찬가지로 東아시아의 신흥공업국(NIC)으로서 타이와같은 東南亞국가들을 한바퀴정도 앞서고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68~78년의 10년간 연평균10%이상의 성장을 이룩했던 韓國경제가 朴正熙大統領서거후 국내정치불안의 결과로 20년만에처음으로 위축됐으며 미곡작황의 불량과 높은 석유값, 그리고 세계의 경기후퇴가 이를 더욱 부채질했으나 금년들어 국민총생산(GNP)이 약6~7%늘어날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삶의 이력서

〈題字 尹致暎〉

윤치영 96

履歷書를 끝내며

"고독한 歷程속 고집대로 살아온 一生"

重責 많이맡았으나 이룬것 없는기분"

잠시간 많은얘기를 했다. 80평생에 보고 듣고 느낀바를 얘기하다보니 밝히기 미안한 속깊은 말도 늘어놓았고 더러는 남의욕도 했다.

履歷書를 쓰는동안 각계 인사들로부터 숨은얘기를 많이 해달라는 요청과 격려전화도 받았고 또 더러는 가시돋친 抗辯調의말도 들었다. 가끔 記述이틀린 부분도 없지 않았다.

한번은 어떤 여성들이 전화로「선생님의 부인께선 東京여자사범학교를 안나왔는데 신문에 그렇게 났으니 틀린게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그말이 맞다. 나의 아내(李恩惠)는 淑明을거쳐 東京고등여학교를 나왔는데 정리과정에서 잘못 전해진 모양이다. 고마운 지적이었다.

그바람에 난 연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를 생각하고 울적한 하루를 보냈다. 60여년을 함께산 동갑내기 아내는 나의 친구이자 동지이기도 했다.

벌써 내나이 84세. 남은 여생을 외아들 仁善내외, 어린 손자 仁求(9) 瀛求(6)와 함께 살며 조용히 지내고 싶지만 그것도 뜻대로 될는지 의문이다. 이나이에도 크게 하는일 없이 사뭇 바쁘기만하니….

그동안 특정인과 관련된 秘話를 털어놓으라는 청도 많았다. 어찌 秘話가 없을까만 되도록 깊은 얘기는 피했다.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성격같아선 적나라하게 토로하고 싶었지만 어쩔수 없이 가린 부분이 많다.

나는 외줄을 탄 사람이다. 고독한 歷程을 밟아오면서 내 고집대로 살아온 일생이었다. 그러다보니 욕도 많이 먹었지만 애써 남의 환심을 사려하지도 않았다. 다시 살아도 그길을 밟을 것이다.

쓸줄 모르는 글을 쓰다보니 先忘後失…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되는말, 안되는 말 쏟은데대해 미안한 심정이다.

지금까지 여러重責을 맡아 봉사했다고 하나 이룬것이 없고보면 나 스스로의 무능함을 심히 통탄하는 바이다.

내인생의 스승 李承晩박사, 애써 돕고자했던 朴正熙前 대통령, 이들에 대해선 輔弼의 책임을 다하지못한것을 끝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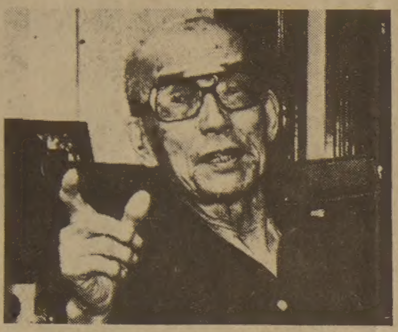
가정적으로도 난 不顧家事의 모난 생활을 해왔다. 아들과 딸, 손자들을 기르다보니 내가 일찌기 부모님에게 효도를 못했음을 알겠고 형제 친척들에게 友愛를 못했음을 알겠다. 세상떠난 아내에게도 인간적으로 뉘우치는바 적지않다. 며느리가 살림하는 것을 지금 어깨너머로 넘겨다보면 生前에 아내의 고생을 이제야 절실히 알겠다.

외람된 얘기지만 나의 후진들, 특히 학생들에게 멀리 앞날을 보는지혜로 창조적인 勉學에 힘쓰라고 얘기하고 싶다. 젊은이들은 민족의에너지를 축적해야한다. 장차 인생의 소모품이 되지않고 創造人이 되기위해서 말이다. 우리보다 교육시설, 환경이 수십배, 수백배 더 좋은 외국의 학생들이 더 많은 시간을 내 공부하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불만은 어디에도 있게 마련이며 털어놓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나는 지금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앞에 꿇어엎드려 나자신의 행실을 자복하며 후진들에겐 미움과 원망 불신을 떨쳐버리고 서로 사랑할 것을 기도드린다.

어렸적 부모, 형님들에게 수없이 들은「修身齊家 治國平天下」란 金言이 다시 새로와진다. 부모님이일생의 좌우명으로 삼으라고 하신「敬天愛人, 溫故而知新」의 의미도 갈수록 그 깊은 뜻을 알겠다. 나도이 깊은 뜻을 진정하게 새기지못한 부족한 사람이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 바라는바는 이나라가 부디 영원한 평화, 행복, 자유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모두가 利己를 떠나 天時, 地利, 人和의 세가지를 알고 지키면 이땅엔 福樂이 오고 이나라의 앞날은 光明하리라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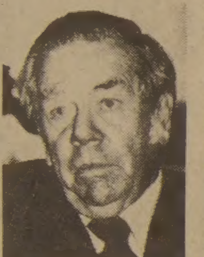
그동안 亂筆로 두서없는 글을 쓴데 대해 여러분의 諒知있기를 바란다.〈끝〉



◇나라와 사회와 가정을 위해 무엇하나 해놓은것이 없는 84년의 지나온길을 되돌아보니 부끄럽기만하다。서울忠正路 自宅에서 최근 筆者의모습。

다음부터 元一漢박사 執筆

언더우드家의 長孫…近代敎育의 산證人



東山 尹致暎씨의 證言은 오늘로 끝나고 다음 週부터는 元一漢박사〈사진〉가 記述하는「나의 이력서」가 연재됩니다. 元박사는 한국에서 3대째, 1세기동안을 살아오고있는「元씨」(언더우드) 家門의 長孫으로 현재 미국연합장로교선교회在韓대표, 延世大재단理事로 바쁘게 일하고있읍니다. 1세(元杜尤), 2세(元漢慶)에 이어 한국선교와 교육에 몸바쳐온 元박사의 이력서는 한미수교1백년(82년)과 한국개신교1백년(84년)을 한꺼번에 [illegible] 歷史의 기록으로서뿐만아니라 한국근대교육의 證言으로서도 큰 값어치가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성원을 바랍니다.

千字春秋

祖國의 어머니

李 範 宣 〈外大교수·小說家〉

전쟁은 많은 이야기를 낳겼다. 6·25때 이야기다. 한때 전세가 불리하여 국군은 강릉을 버리고 후퇴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국군장교 한 사람이 그 절박한 판국에도 어머니를 위하여 자기 집에 들렀다.

『어머니, 잠시 물러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겠읍니다!』

그의 늙은 어머니는 땀과 먼지로 범벅이된 아들의 얼굴을 바라볼 뿐 말이 없었다.

『어머니, 아주 긴박합니다. 빨리 준비하십시오.』

아들은 신발을 벗을 겨를도 없이 토방아래 선 채 어머니를 재촉하였다.

『어머니! 빨리…』

아들은 초조했다. 포성은 차츰 가까와 왔다.

『너만 어서 나가거라!』

어머니의 첫마디였다.

『어머니, 우리는 곧 돌아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잠시 나가십시다』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다.

『그래 돌아와야지. 꼭 돌아와야지! 이 에미는 너 아들을 믿는다. 그래 여기 남으련다. 만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떠나고나면 그때는 네가 에미도 없는 이땅을 무엇때문에 목숨을 걸고 빼앗아 돌아오려 할 것이냐! 그러니 이 에미는 여기 이 자리에 꼭 지켜 앉아있으마. 너는 어서 피했다가 꼭, 꼭 이 에미가 있는 이땅을 도로 찾아야한다. 이 에미 앞에 돌아와야한다. 알겠니!』

밖에서는 지프 엔진소리가 그 젊은 장교를 재촉하고 있었다.

나는 이 강릉 국군의 어머니 이야기를 어느좌석에서 들었을 때 가슴이 찡함을 느꼈다.

그 늙은 어머니! 그분은 곧 우리조국의 어머니인 것이다. 진정 위대한 어머니였다. 우리는 모두 나라를 사랑하고있다.

우리는 이 강산이 경치가 아름다와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오, 오천년의 역사가 대견해서 싸움터에서 피흘리며 죽어가는 것도 아니다.

남의 눈에는 걸레쪽이나 쓰레기통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부모와 형제가 살고있는 정든 땅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키려하는것이다.

한국일보 詩壇

외로움

鄭 奎 和

시퍼런 하늘 밑
지렁이처럼 꿈틀거리던 영혼,
네가 보는 앞에서
들국화는 찬서리에 피었다
우리의 힘으로 꺼이꺼이
우리의 자장가 부르고
네가 살아있는 지금까지
왜에게서 되찾은 황톳길 넘어왔다
이 고개 저 고개
정들자 떠난 님 죽살이 고개
넘어 넘어서 한 때는 서분
솔씨로 꿈꾸었다.
그해 겨울 혹독한 추위 속에서
뜻없는 밤샘에 땀흘린,
네 천한 양심 소주잔을 채우면서
하루의 절반만 낮으로
살았는데 살았는데 살았는데….

流星의 賦 〈241〉

李炳注 作
李友範 畵

感傷異國月 ⑦

거듭되는 수길의 독촉을 받고 종의조가 그의 양자 종의지(宗義智)를 보낸 것은 선조21년 즉 1588년 12월. 그 일행은 하까따 성주사(博多 聖住寺)의 주지 현소(玄蘇)와 종의조의 가신인 유천조신(柳川調信) 그리고 소서행장(小西行長)의 사신인 도정종실(島井宗室)이었다.

이들은 오랫동안 부산객관(釜山客館)에 머무르면서 조정이 통신사를 파견할것을 요청하고, 통신사와 같이 돌아가겠다고 버티었다.

수길의 요구는 조선국왕의 일본 조정에의 출사(出仕)였지만, 일본의 사신들은 감히 그런 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어 통신사의 파견만을 요청한 것이다.

조정에선 의론이 백출하여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런데다 조정(朝政)의 득실을 극론한 조헌(趙憲)의 상소가 있어, 그것이 불가하다고하여 그를 길주(吉州)로 귀양을 보낸 일들이 있었다. 그러던 차 인사이동이 있었다. 영의정 노수신과 좌의정 정유길이 물러나고 영의정에 유전, 좌의정에 이산해, 우의정에 정언신, 이조판서에 정탁, 병조판서에 유성룡(柳成龍)이 앉았다.

이러한 판국인지라 종의지 일행은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들이 다시 나타난 것은 1589년 6월이었다. 이때의 인원구성은 정사(正使)가 현소이고 부사가 종의지로 되어있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종의지를 조정에선 대마도주의 사신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현소를 일본국사(日本國使)로 위장시킬 필요가 있었던 때문이다.

그 해의 8월1일。강연(講筵)에서 일본문제가 의제에 올랐다。임금이 변협(邊協)에게 먼저 의견을 물었다。

『왜인들이 이번 그들의 소청을 거절하면 우리 나라와의 수교를 끊을 것 같으냐』

변협은

『대마도는 우리들로부터 후리(厚利)를 얻고 있는데 그럴 수야 있겠읍니까』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임금은

『통신사를 보낼 수 없다고 본다。그대신 그 사신들은 후하게 대접해 보내라。선물도 푸짐하게 준비하라』

고 일렀다。이에 전적 허성(許筬)이 아뢰었다。

『통신사 보내길 거절하면 병화(兵火)로 대하게 될지모르는 일이옵니다。그러니 차제에 통신사를 보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수길은 원래 미천한 출신으로서 일어난 사람이옵니다。이제 통신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힘을 빌어서 그 국민들의 인심을 진정하려는 것이지 결코 타의가 없을 줄 아옵니다』

그석상에선 일본의 사신들이 선물로 가지고 온 공작(孔雀)이 문제로 되었다。어느 사람들은

『수토(水土)가 맞지 않으면 기르기 힘들 것이니 돌려보내라』

고 하는 의견을 말했고 어느 사람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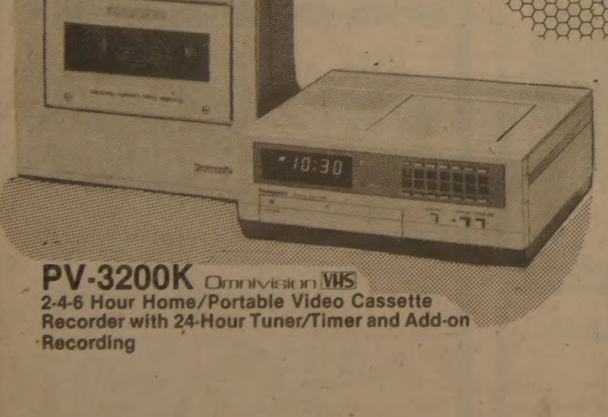
『모처럼 가지고 온 선물을 돌려보낸다면 감정을 상할 수도 있는 일이니 받아 두자』

는 의견을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결국 그 공작을 받아두었다가 일본국의 사신들이 돌아간 후 제주도에다 방사(放飼)하기로 결정을 보았다。그런데 이 결정은 뒤에 남양절도(南陽絶島)에 방사하기로 바뀌었다。

중앙 AUTO-SERVICE
• TUNE UP
• SAFTY INSPECTION CERTIFY
•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TOR
532-3946 길창세

"비데오 테프 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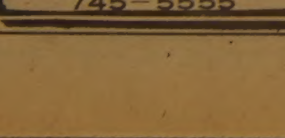
PV-3200K Omnivision VHS
2-4-6 Hour Home/Portable Video Cassette Recorder with 24-Hour Tuner/Timer and Add-on Recording

SANYO
"Makes Life's Good Things…Better
Video Cassette Recorders

VTC9100 Video Cassette Recorder
Sanyo makes video recording or playback easy and inexpensive. Built in TV tuner lets you watch one program while recording another or allows unattended recording up to 24 hours in advance. Remote Pause Control for instant editing • Lighted Channel indicators • Easy TV hook-up • One touch Recording or Playback • Up to 3 hours Recording or Playback* • Memory Rewind • Automatic Shut Off.
*Note: L-830 tape not recommended for use with VTC9100
$ 799.00

PK-700AK
Compact Color Video Sound Camera with Electronic Viewfinder and 6 : 1 Motorized 1-Speed Zoom Lens
• Extendible Boom Mike
• 3 Position Color Temp. Switch.
• ± Iris Control
• Stand By Swi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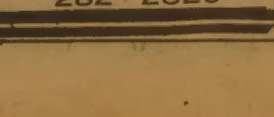
WEST지점
전 광 재
3467 WESTON RD. FINCH



745—5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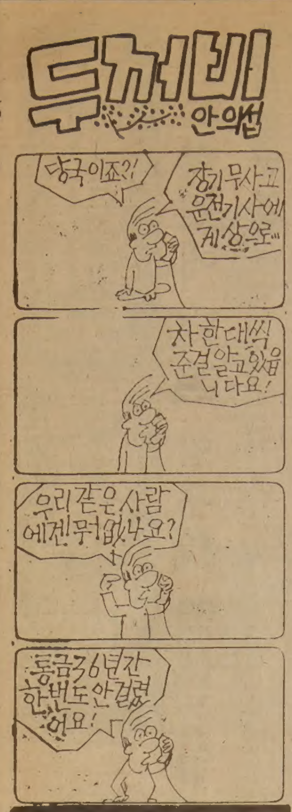
아카데미 T.V.&STEREO CO.

EAST지점,
김 정 운, 전 병 걸
255 MORNINGSIDE AVE.



282—2820

두꺼비 안의섭



機關員사칭、황소판農夫납치

扶餘서 서울로 "조사할일있다" 乘用車로

旅舘주인申告로 警察구출 30代 2명 조사받다 도주

기관원을 사칭한 30대남자 2명이 소를판 농부를 충남 扶餘에서 서울까지 납치, 여관에서 돈을 빼앗으려다 여관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조사를 받던중 모두 달아났다.

19일낮12시40분께 충남扶餘郡林川面角敎里3 金昌鎬씨(43·농업) 집에 수사관을 사칭한 30세가량의 청년 2명이 찾아와 『조사할것이 있다』며 金씨를 서울1가2564호 뉴코티나 승용차에 태운뒤 고속도로를 거쳐 서울로 납치했다.

이날하오 6시30분께 서울西大門區忠正路3街 대성여관(주인 李憲秀·66)에 金씨를 데리고 들어간 범인들은 『당신이 부채관계로 고소를 당해 조사하려는 것이니 우선 갖고있는돈을 모두 보관 시켜라』며 편지봉투를내놓고 金씨를 묵박질렀다는 것。

金씨는 빚진일이 없는데다 범인들이 처음 扶餘경찰서로 간다고 했다가 서울까지 데려온것을 이상히여겨 용변을 핑계로 방을빠져나와 여관주인 李씨에게 경찰에 신고해줄것을 부탁했다。 李씨의 신고를 받은 西大門경찰서 西大門파출소 朴宗圭순경(36)이 방범대원1명과 함께 출동, 범인들에게 신분을 밝힐것을 요구하자 범인중 1명이 해군대위신분증을 내보이며 『수사중이니 돌아가라』고 말했는데 범인들은 朴순경이 전화로 파출소에 임검결과를 보고하는 틈을타 여관앞에세워뒀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조사결과 범인이 내보인 신분증은 가짜로 밝혀졌고 승용차는 서울冠岳區奉天洞 崔正□씨(47)의 명의의 것이나 지난해7월 차적이말소된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金씨가 이날상오林川장터에서 황소1마리를 70만원에 내다팔고 농협지소에 들러 융자금을갚고 집으로돌아갔었다는 말에따라 범인들이 장터에서 金씨를미행, 소판돈을노려 범행한것으로 보고 1백70㎝의키에 각각 흰색바지와 노란색점퍼, 작업복바지와 스폰지점퍼차림의 범인들을 수배했다。

새해 공휴67일

새해에는 일요일 52일과 신정(新正) 연휴를 포함한 법정공휴일 15일등 모두67일이 공휴일이다。그런데 이중 신정연휴기간인 1월3일、현충일인 6월6일, 8월15일의 광복절、10월3일 개천절등 4일이 일요일과 겹치고 또 국군의 날인 10월1일이 추석과 겹쳐 공휴일은 결국 62일이 된다。

그러나 3·1절과 식목일(4월5일)이 각각 월요일이고 또 석가탄일(5월1일) 제헌절(7월17일), 한글날(10월9일)、성탄절(12월25일)등은 토요일로 2일계속되는 연휴가 6차례가 있다。

이밖에 1월25일 6월21일 7월21일 12월15일등 4차례의 부분일식과 1월10일 7월6일 12월30일등 3차례의 개기월식현상이 지구상에 나타나지만 우리나라에선 4회의 부분일식과 1회의 개기월식은 볼수없고 나머지 2차례의 개기월식은 전국어디서나 초저녁부터 관측할수있다고 국립천문대가 밝혔다。

훔친 化粧品사서 팔아

小公지하商街8명 1억5천만원 脫稅

서울시경은 21일 서울中區小公지하상가63의1 鄭英子씨(31·여)등 8명의 화장품 관매상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의하면 이들은 지난5월부터 유명화장품 제조업체의 대리점, 특약점등지에서 불법유출됐거나 절도범들이 훔쳐온 화장품 1억5천여만원어치를 싸게구입、장부에 기재도않은채 팔아 부가가치세 1천5백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화장품의 제조연월일 메이커표시등을 떼어낸뒤 정상공급된 화장품보다 5~15% 싼값에 팔아왔는데 일부는 관리잘못으로 변질되거나 용도를 그릇되게 선전하여 사용자들에게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했다는것。

대리점과 특약점에서는 메이커로부터 정상공급받는 화장품을 외판원들을통해 팔경우 월부판매로 현금회전이 늦어지자 이같은방법을 써왔으며 소매상들은 장물인줄 알면서도 싸기때문에 사들였다는 것이다。

한편 이같은 화장품의 수요가 늘자 화장품절도가 성행、태평양화학에서는 올들어 10월말까지 1백94회(6천3백여만원어치)나 도둑을 맞았으며 한국화장품 피어리스등의 대리점 특약점등에서도 3백여건의 도난을 당한것으로 경찰에신고됐다。

J君 다시連行搜査키로

警察 "齒痕、사망직전생긴것"分析따라

朴尙恩양사건 出頭요구불응

상경 여대생 朴尙恩양(21)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시경은 21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던 J모군(21·K大 3년)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다시연행 수사키로 방침을세웠다。

수사본부는 지난19일 출석요구서를 발부했으나 J군은 21일 경찰에 나타나지않고 있는데 J군측은 『23일부터 학교시험이시작돼 출두할수없다』는 이유로 불응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J군에대해 그동안 불구속입건상태로 증거보강수사를 계속해왔는데 이번에 다시 연행수사를 하기로한것은 朴양의귀밑에 난 치흔이 J군과 일치할뿐만아니라 朴양사망10~50분전에 생긴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결과와 사건당일밤 三非莊 여관까지 태워다준 운전사와 젊은이들이 싸우고있던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이 임의성이있어 이같은사실을 재확인하기위한것이다。

경찰은 J군의 임의출두를 기다렸다가 3차례의 출석요구를받고도 계속불응하면 강제연행절차를 밟을방침이다。

가야時代 철갑옷등 文化財밀매 넷구속

서울지검 형사4부 朴珠煥검사는 21일 보물급 가야문화재 13점을 도굴해 밀매하거나 보관해온 金守完(41·경남金海市大成洞2區)、李鍾士(46·서울中區新堂洞송옥당 주인)、朴相烈씨(31·경남金海市)등 4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金씨등2명은 지난79년11월4일 하오3시께 경남金海郡二北面退來里야산에서 가야시대의 매장문화재인 철갑옷등 4점(싯가 1천만원 상당)을 도굴、같은달 중순께 골동품상인 李씨에게 80만원을받고 팔아넘겼다는것。

李씨는 이가운데 철갑옷을 서울모대학 박물관에 8백만원을 받고팔려다 검찰에 붙잡혔다。

또 朴씨는 79년7월중순께 金海市西部洞690에서 호리꾼이 도굴해온 가야시대 빗살무늬토기호등 9점(싯가 1백만원)을 5만원에사들여 판매처를물색하다 붙잡혔다。

머리붙은 女쌍동이 탄생

體重 1kg미달 건강좋아

서울大서 精密검사

머리가 나란히붙은 여아쌍동이(사진)가 태어나서 울大병원 조산아실에서 정밀검사를 받고있다。

20일상오3시30분께 경기水原市 한양산부인과에서 개복수술에 태어난 이 쌍동이는 각각 머리의 형체는 갖추고 있으나 옆머리가 붙은 기형으로 몸은 각자 자유로운 상태로 움직이고있다。

쌍동이는 서울大병원 조산아실로 옮겨져 보육기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두아기는 몸무게를 합쳐 4·7kg으로 정상아보다 1kg가량 미달이나 건강상태는 양호해 우유도먹고있다。

서울大병원 崔吉洙 신경외과과장은 두아기의 머리뼈가 결합되어 있는것은 확인됐으나 뇌가 공유되어있는지의 여부와 두아기의 분리수술가능 여부는 정밀검사결과가 나와야 밝혀지겠다고 말했다。

산모 金모씨(37·水原市細柳洞)는 딸4형제를 낳은후 정상보다 2개월일찍 이쌍동이를 낳았다。

신생아의 몸체가 결합되어 태어난것은 국내최초의 일이며 미국에서 최초로 태어났던 쌍동이의 경우 2년만에 분리수술을해 정상을 되찾은바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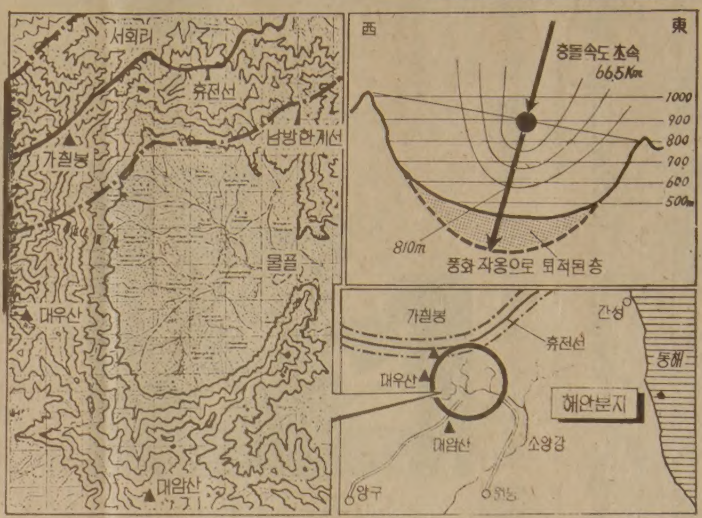
재일동포 李勝馥씨 本社에 올림픽誠金

【名古屋=총국】 재일동포 李勝馥씨(60·사진·일본名古屋市千種區寺尙通1의20)는 21일 88년서울올림픽개최에 도움이되도록 해달라고 성금10만엔(30만원)을 본사名古屋총국에 기탁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6·25激戰地 楊口「펀치·보울」

세계 최대 隕石盆地 판명



한국科技院 李炳昊박사팀 論文서 밝혀

美애리조나구덩이의7배

펀치볼(Punch bowl)로 널리 알려진 6·25격전지 亥安분지(강원 楊口郡亥安面)가 세계최대의 운석구덩이(隕石盆地)로 밝혀졌다。 강원楊口동북쪽20㎞ 휴전선 바로 남쪽 민통선안에 자리잡은 이분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운석구덩이일뿐 아니라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큰것으로 알려진 미국 애리조나 운석구덩이(직경1·2㎞、깊이1백30m)보다 7배나 큰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21일 한국과학기술원 李炳昊박사팀의 「펀치볼은 운석분지」란 논문에서 밝혀졌는데 李박사팀은 이논문에서 亥安분지는 ▲주변의 경사와 주위윤곽이 구면(球面) 대층을 이루고 있고 ▲운석의 주성분인 철과 니켈이 주변의 다른 지역에 비해 평균 3、4배 많은데다 ▲분지의 바깥쪽 가장자리 경사면이 화산분지와 전혀다른 울퉁불퉁한 형태의 험한 작은 언덕으로 이루어져있는 등 지형은 물론 지질학적 구성이 운석구덩이의 독특한형태를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점등을 들어 운석구덩이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李박사팀은 또 이지역의 우물물에 많은 양의 철분이 녹아있어 끓이면 벌건 색깔로 변하고 개천엔 철분 투성이의 검은 모래가 亥安분지를 뒤덮고 있을뿐 아니라 이분지의 북쪽에 자리잡은 해발1천2백42m의 加七峰 산허리에서 조개껍질과 뼈조각등이 발견돼 亥安분지가 오래전엔 널따란 호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만했다。

◇李炳昊박사

개천에 검은 鐵分모래

1천만년전 떨어져

직경 8km、깊이 8백m 달해

李박사는 지난3월 현지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E·J·외피크박사(美아르마천문대)의 이론에 따라 亥安분지가 직경1백88m、무게2억4천7백만톤짜리의 거대한 운석이 동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하늘로부터 음속의 2백배에 달하는 초속66·5㎞로 떨어져 직경 8㎞、깊이 8백10m의 운석구덩이를 형성했을것으로 보고있다。

李박사는 또 운석이떨어진 햇수는 대략 1천만년전쯤이 될것으로 추측했다。

운석구덩이란 외계에서 지구로 떨어지는 천연의물체를 통틀어 운석이라하는데 이같은 운석이 지표면에 충돌、그충격과로 만들어진 구멍 즉 구덩이를 말한다。

운석의 속도는 대략 초속 5·7~15㎞정도로 빠르기때문에 운석의대부분은 대기층과의 마찰로 타없어지게마련이다。 따라서 여간 큰규모의 운석이 아니고는 지표면까지 도달하지 못하는데 운석구덩이는방향에 관계없이 둥근형태를 이루는것이 특징이다。

地球歷史 중요자료

▲羅遠星연세대천문학과교수=대단히 흥미있고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크다고본다。 잘 보존된 운석구덩이는 운석은 물론 지구의 과거를 연구하는데 중요한자료가 되기때문이다。

오랜 옛날 지구표면엔 크고작은 많은 수의 운석이 떨어져 도처에 운석구덩이를 만들었을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오랜세월을 거치는 동안 이들은 풍화작용에의해 거의 흔적을 찾아 볼수 없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비교적 깨끗한 형태로 남아 있는 직경8㎞정도 큰규모의 운석구덩이가 보존되어있다면 국제적으로도 관심을끌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李光榮기자】

펀치 보울

6·25종군記者들이別名붙여

펀치볼로 알려진 강원도 楊口郡亥安面 재건촌이 자리잡은 亥安분지는 면적 1천3백23헥타에 인구 2천3백13명이 살고있는 비옥한땅이다。 서쪽에 加七峰、兜率山、남으로 大岩山이 자리잡고 동쪽에 산허리가 굽긴 물골이있다。 고려시대 蓮花(두꺼비)縣으로 불려지다 조선조에 海安으로개칭되었다。 그러나 뱀이 하도 들끓어 한 고승의 충고에 따라 이름을 뱀과 상극인 돼지의 뜻을 갖는 亥安으로 바뀌었다한다。

해방후 53년까지는 북한치하에있다가54년11월강원도麟蹄郡亥安面으로 편입되었고 56년4월 1백50가구 9백65명이 첫입주한뒤 72년4월 2차로 1백가구 4백26명이 재입주했다。 그리고 73년7월 행정구획이 麟蹄郡에서 楊口郡으로 들어갔다。

亥安분지가 펀치볼로 널리 알려지게된것은 6·25때 격전지가 되면서부터。 당시 이곳에서의 격전을 취재하던 종군기자들이 둥그렇게 땅이파인 이곳의 지세가 마치 큰 화채그릇처럼 생겼다해서 펀치볼이란 이름을 붙여 세계에 알려지게 된것이다。

국민관광 개발 대상지 확정

교통부는 21일 내년에 90억원을들여 인구50만이상의 대도시와 대단위 공단주변9개소를선정、국민관광지로개발키로했다。

확정된 개발대상지역은 ▲龍門山(楊平) ▲牙山湖(平澤) ▲大淸공원(釜山) ▲八公山(大邱) ▲母岳山(全州) ▲八龍山(昌原) ▲長城湖(全南長城郡) ▲寶門山(大田) ▲金烏山(龜尾)등지로 이지역에는 상·하수도시설、다목적잔디구장、야영장、산책로、취사장 위락시설등을 갖추어 당일코스로 개발된다。

교통부는 이와함께 오는86년까지 20개소의 국민관광지를 새로개발、1일 관광지33개소와 종합관광지 2개소등 35개소의 국민관광지를 확보할계획이다。

卒業生 기부금모금 경희대교수 둘立件

속보=서울淸涼里경찰서는 21일 연구소를 설립한다면서 졸업생들로부터 금품을 모금해온 慶熙大한의과대학 한의학과장 文□□교수와 한방병원장 李文宰교수등 2명을 기부금품 모집금지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李교수등이 졸업생 15명으로부터 받은 6천3백만원에대한 자료일체를 압수하고 다른기부자가 있는지의 여부와 기부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박사학위와의 관련여부 등에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탁구장놀러온 처녀 大學講師등이 亂行

서울永登浦경찰서는 21일 安勝浩씨(27·대학강사·서울九老區開峰2洞원풍아파트 7棟)와 徐龍河씨(27·서울永登浦區楊坪洞4街153의1) 등 2명을 강간치상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15일 하오11시께 서울永登浦區楊坪洞4街153H탁구장에 놀러온 柳모양(20·의상실종업원)을 탁구장안 간이침대에서 번갈아 욕을 보였다는 것이다。

국립박물관에 水晶기념실

白磁·靑磁 주축이뤄

故水晶 朴秉來선생 기념전시실(사진)이 26일하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문을 열었다。

지난 13일에 개관한東垣기념실에 이어 두번째개인기념전시실인 水晶기념실은 朴秉來박사가 74년3월31일 국가에 기증한3백62점의 이조자기를 전시하기위해 마련된것이다。 이날 개관식에서 水晶선생의 미망인 崔鶴여사가 靑華白磁透刻寶龍文筆筒、靑華白磁山水文筆架등 애장품 17점을 기증、기념실의 내용을 한층 빛냈다。

水晶 朴秉來박사는 1903년 論山郡에서 출생、지난 74년 세상을떠날때까지 가톨릭성모병원장을 지낸 의사로서 사회에 크게이바지하면서 조선시대 백자수집에 애정과 정열을 쏟았다。

水晶이 기증한 문화재는 백자와 청자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모두가 예쁘고 단정하고 산뜻한 흐트러진 것이 없는 점이 자랑이다。 조선중기이후의 명품이 많고 18세기 전반의 廣州 금사리 가마의 것도 포함돼 있으며 특히 18·19세기 분원가마의 단정하고 의젓한 작품은 조선시대 백자연구와 감상에 빼놓을 수 없는 수집품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두번째 개인기념실이 마련됨에 따라 문화재 소장가들의 문화재관리에 대한 관념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물관측은 기증자들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좋은 전시실을 만들고 정성껏 관리、사람들이 문화재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있다。

SUN-LIFE
생명보험. 각종보험
B) 922-3111
R) 439-8885
MRS. 김신명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5주년 기념 세일
⊙전자 CASH REGISTER
⊙각종 전기전자 계산기
⊙각종타자기
⊙금고, 책상, 케비넷
김 성 수
교포경력(TORONTO 15년 경력)
분납가능

Grant Brown
새차및 81년도 데모카
특별세일(매출)
GMAC 이자율 14.2%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정기총회 소집공고

정관에 의거하여 본회 제6회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키로 1981년 7월 이사회에서 결정되어 이에 소집공고 하오니 회원제위 께서는 부디참석하셔서 많은 고견과 친화가 이룩되시기를 간망 하나이다.

— 아 래 —

일시 : 1982년1월2일 오후1시
장소 : 한인회관(20 MOBILE DR)
안건 : 1. 회무보고
2. 감사보고
3. 81년도 세입, 세출에 관한건
4. 82년도 세, 출입 예산심의건
5. 임원개선건
6. 기타사항
※특별히 유의하실 사항은 12월31일 4시까지 회비(81년도분)를 납부한 자라야 회원권이 발부됨.

한국노년회장 정 인 기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 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30P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삼미떡집2층)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집전화 : (416) 222-9480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A. E. LEPAGE 부동산
투자가의 이익을 보장하는

A.E. LEPAGE
각종주택 투자관리
각종점포 매매알선
대지및 상가 대출안내
1174 ALBION RD. at ISLINGTON
B) 741-9170,
R) 851-4717
DOUGI WOO 우 덕 이

안타까운 「한국蹴球」

10년간 월드컵·五輪터걸이도 못해

올들어 青少年대회·南北대결등 連敗

국민들과 호흡을 같이해 오면서 한때 큰인기를 구가했던 축구는 한국스포츠가 날로발전하고있는 요즘의 추세에 역행,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다. 축구를 사랑하고, 한국축구의 발전에 무한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팬들은 『이대로 보고만 있을것인가』고 반문하고 축구협회 집행부가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 의욕적인 행정을 펴나갈것을 희망했다.

◇지난6월 제11회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출전을 앞두고 판교도로공사구장에서 연습하는 花郞。

亞洲頂上 마저흔들…팬外面자초

技術分科委보강 대표팀 정비를

協會수뇌 책임질줄알아야

崔淳永회장을 비롯한 현 축구협회집행부는 협회 살림을 맡아 현재까지 국내 축구 발전을 위해 공헌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에못지 않게 여러가지 실책을 드러냈으며 특히대표팀 전력강화·국내경기활성화·프로축구도입 등의 중요문제를 제대로 해결못해 협회행정이 안일에 빠져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지난 70년당시 張德鎭회장이 국가상비군제도(靑龍·白虎)를 창설한 이래 역대협회가 가장노력을 기울인 문제는 대표팀강화였다.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대표팀의 전적이 국위와 국민사기면에 미치는 영향, 대표팀이 강해지면 따라서 국내축구수준도 향상된다는 파급효과까지 고려되어 대표팀 강화를위해 많은 훈련비를 쏟아온 것이다.

지난10년간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축구는 월드컵이나 올림픽본선에 진출할수있는 자격을획득하지못한채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왔고, 81년의 대표팀 역시 국내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못했다. 세계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하더라도 아시아에서는 최강의 위치를 굳혀야한다는것이 팬들의 일반적 욕구였다.

우리가「강한 대표팀」을 유지관리하지 못한 최종적인 책임은 축구협회가 질수밖에없다. 대표선수를관리하는 책임이 협회에 있기 때문이다. 현 대표팀이 팬들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지못하는것은 金正男·金鎬坤 젊은 코칭스태프가 잘가르치지못한 때문도 아니며 선수들만을 나무랄수없다. 협회가 대표팀 강화의 확고한 청사진, 장기강화훈련을 준비못한데 큰 이유가있다.

올해들어 한국축구는 쿠웨이트 월드컵 예선전、濠洲세계청소년 선수권대회、킹스컵 남북대결등 주요경기에서 잇따라 실패했다. 스포츠에서 패배는 불가항력이라지만 협회관계자들은 주요경기에서 실패한후에도 안일한 태도로일관、앞으로 좀더 잘해보자는결의가 보이지 않았다. 주요경기의 패전여파로 집행부기능이 흔들렸던 지난날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권리에 의무가 따르듯 앞으로의 축구협회는 결과에대해서도 책임지는 풍토가 마련돼야 하겠다는 의견이다.

올해안으로 산하 연맹을 협회에통합,일원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있는데 문제는 제도가 아니며 운영능력에 달려있으므로 협회관계자들이 과거와 같은 태도를 고수하는한 제도를 어떻게 바꿔도 좋은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각 분과위원회의 정예화가 아쉽다. 특히 대표선수를 선발하고 국내경기력과 기술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게되는 위원회에는 기술분야의 엘리트들이 대거 참가해야 하겠다.

한국축구의 프로화는 요원한 숙제이다. 지난해12월에 선교목적의 할렐루야팀이 창단되어 국내프로축구의 개척자로 등장했으나 1년이 지난 오늘 할렐루야팀이 본격 프로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볼 일이다. 프로화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 하는것은 최근프로야구창설을 둘러싼 진통으로도 알수있다. 섣불한 프로화는하지않는것만도못하다.

요즘 축구인들이 협회에 간절히바라고있는 문제는 협회의 노력으로 잔디구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잔디구장문제는 역대회장들이 수없이 공약한 과제였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않고있다. 崔淳永회장이 어떤 형태로든 잔디구장을 마련한다면 한국축구사에 기록될 업적을 세우게 되는 것이다. 【金在契기자】

亞洲남자籠球

한국 中共에 完敗 준우승

長身숲 끝내 못뚫어 96·64

【캘커타20日AP=聯合】 12년만에 아시아정상을 탈환하려는 한국남자농구의 꿈은 또 다시 中共의 장신벽에 무너졌다. 20일 폐막된 제11회 아시아 남자농구선수권대회(ABC) 최종일 결승서 한국은 中共의 장신벽에 막혀 초반부터 고전, 96-64로 패퇴했다.

中共은 75년 8회 ABC대회부터 4연패를 차지했다. 한국은 74년 테헤란아시안게임서 中共과 처음 대결한후 이번까지 8차례 대전했는데 한국은 2승6패로 열세를 보이고있다.

이번대회서 日本은 3위, 필리핀은 4위, 印度는 5위, 말레이지아는 6위를 각각 차지했다.

한국과 中共의 결승전은 한국의 기동력과 中共의 장신과의 대결였다. 穆鐵柱(2m38)、馬點福(2m16)등을 재기용한 中共은 한국의 골밑 접근을 철저히 막고 신장의 우세를 충분히 활용, 중반부터 기선을 잡았다. 한국은 12분까지 24-24로 호각세를 보였으나 중거리 부진으로 이후 中共에 밀렸다.

西山佑의 리바운드와 金東光 林正明 李忠熙의 기동력과 중거리숏에 기대를 걸었으나 장신마크에 숏·타입을 제때에 포착하지못해 이번대회서 우세하게 나타난 숏 적중률을 보여주지 못했다.

한편 中共은 장신선수들의 한국 골밑에서 자유자재로 숏을 날려 西山佑가 中共장신을 막아내기는 역부족, 전반을 43-26으로 크게 뒤졌다.

한국은 후반서도 추격의실마리를 전혀 잡지못한채 中共의 페이스에 말려 96-64로 완패했다.

◇결승전

中共 96(53-43 38-26)64 한국

◇종합순위=①중공5승②한국4승1패③일본3승2패④필리핀2승3패⑤인도1승4패⑥말레이지아5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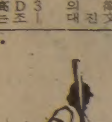
冲岩·徽文 결선합류

서울市고교야구

서울시 고교야구추계리그전 10일째 예선 최종일경기가 21일 서울운동장에서열려 예선D조에서 冲岩高와 徽文高가 마지막으로 결선에 진출, 결승토너먼트 8強의대진이 확정되었다.

冲岩은 이날 培明을 3-2로눌러 3전전승으로 D조 1위를 차지했으며 徽文高는 2승1패로 2위를차지했다.

信一은 8안타 9四死球, 5敵失로 京東에 8회일몰콜드 9-2로 대승, 3승1무 예선A조 1위를차지했다.



럭비풋볼 선수권

高大、단독先頭 나서

檀大에 역전승…空士도 慶熙꺾어

제20회 럭비풋볼 종합선수권대회 3주째 경기가 21일 梧柳洞럭비전용구장에서 열려 高麗大는 檀國大에 전반 8-9로 뒤졌으나 후반 38-13으로 역전승, 2연승으로 선두에 나섰다. 空士官學校 역시 慶熙大에 전반을 6-7로 뒤졌으나 후반 정선택의 활약과 맹렬한 투지로 경희대를 압도, 19-10으로 게임을 역전시켜 1승 2패를 기록했다.

高麗大는 전반 1분35초에 高在佑가 트라이에 성공, 선제 4점을 올렸으나 이후 檀國大의 맹렬한 반격과 태클에 밀려 전반을 1점차로 리드당했다.

그러나 高麗大는 후반 4분께 CTB宋璉鎬가 상대수비를 피해 트라이에 성공하고부터 경기의주도권을되찾았다. 이어 8분께 文永贊이, 14분에는 丁炯碩이 또다시 트라이에 성공했으며 19분에는 이날의스타 宋璉鎬가 또다시 4득점,확고한 리드를잡았다.

檀國大는 후반에들자 高大의 공격진을 수비선수들이 태클하지 못했으며 공격진은 高大의 완강한 블로킹에막혀 게임을 풀어나가지 못했다.

또한 몇차례의 페널티킥을 성공시키지못해·사기가 떨어져 2연승을 거둔뒤 끝내 이날 1패를 안았다.

◇제3주전적

高麗 38(8-9 30-4)13 檀國대학
(2승) (2승1패)

空士 19(13-6 3-7)10 慶熙대학
(1승2패) (1승1패)

北韓、中共을격파 / 킹스컵축구

【방콕20日聯合】북한은 20일 방콕에서 속행된 제14회 킹스컵 축구대회 준결승 1차전에서 中共에2-0으로 이겨, 결승진출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필름없는 카메라 實用化단계

日本 電子회사서 「마비카」 첫선

影像 磁氣디스크에 현상등 不必要

색상변화없어 영구保存도 가능 高速촬영때 感度떨어지는게 흠

캐나다선 값싼 셀레니움감광필름 개발

최근 사진술이 큰 변혁기를 맞고있다. 필름을 쓰지 않는 카메라가 탄생되는가 하면 銀대신 셀레니움 감광제를 이용하는 새로운 값싼 필름이 개발, 멀지않아 실용화될 전망인 때문이다. 사진술에 새 바람을 일으킬 필름을 쓰지 않는 카메라와 셀레니움감광제 필름이란 어떤것인지 알아보았다.

〈필름을 쓰지 않는 카메라〉카메라의 착상은 암상자에서 비롯되었다。암상자란 안을 어둡게한 상자의 한쪽에 바늘 구멍을 뚫어 그반대편 벽에 바깥풍경이 비치도록 한것。암상자에 비쳐진 영상을 그대로 재현시켜볼수없을까。이같은 생각을 처음 실현해본 사람이 프랑스의 석판공이자 발명가인 조세프·니세포르·니에프스。니에프스는 1826년 鹽化銀을 감광제로 사용해서 영상을 옮겨 보는데 성공했다。카메라는 그후 자동노출과 자동초점카메라에서 곧바로 사진을 뽑아 볼수있는 폴라로이드에 이르기까지 큰 발전을 보아왔다。그러나 이들 기술적인 발전은 어디까지나 감광필름을 이용한다는 근본원리면에서는 다를바가 없다。이렇게 따질때 카메라는 1백50년을 지내오는동안 원리면에서는 기술적 혁신이 없이 지내온 셈이다。필름을 쓰지않는 카메라는 이런뜻에서 사진술의 일대혁신으로 받아 들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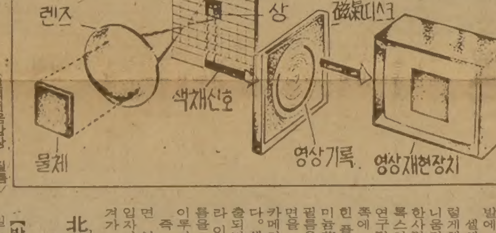
모양도 종래의 카메라와 크게 다르지않다。그러나 영상을 담는 원리면에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이 카메라는 렌즈를 통해 촛점이 모아진 빛형태의 영상정보를 CCD(電荷結合장치·Charge coupled device)로 불리는 특수전자장치로 電氣化해서 磁氣디스크에 수록한다。따라서 현상이나 인화를 할필요가 없다。磁氣디스크를 영상을 재현시키는 장치에 걸기만하면 된다。

일본 소니社는 지난여름 이 카메라를 磁氣映像카메라란 뜻의 마비카(Mavica=Magnetic Video Camera)란 이름으로 선을 보였다。소니社가 개발한 마비카는 일안 반사식카메라형식에 크기가 본체 폭13㎝、높이8·9㎝、두께5·3㎝、무게 본체 8백g、電源으로 전전지 3개를 쓰고있고 직경5㎝정도의 磁氣디스크속엔 사진50장을 수록할수 있다。

마비카의 특징은 電氣的인 방법을 쓰고있기때문에 일단 영상을 수록하면 밝기라든가、색상의변화가 전혀없이 영구보관할수 있고 촬영중에도 어느때나 필름에 해당하는 磁氣디스크를 교환할수 있으며 필요에따라 기록을 마음대로지우고 새로운 영상을 담을수 있다는것。

다만 현재 실용화된 磁氣디스크의 감광도는 ASA 2백정도여서 고속촬영 등을할때 감도가 좀 떨어지는게흠이다。

가격은 본체가 45만원(15만엔)、磁氣디스크의 기록을 재현시키는 장치가 15만원(5만엔)정도라고。



〈셀레니움감광 필름〉사진을찍게되면 영상은 우선 필름에담겨진다。필름엔 감광제가 발라져있어 렌즈를통해 들어온 바깥풍경을 밝기에따라 변화를 일으킨다。이때 필름표면엔 눈에보이지않으나 변화를 일으켜 이를 현상、인화함으로써 사진을 얻게된다。그러나 지금까지 이용되어온 감광제는 鹽化銀으로 되어있어 상당량의 銀을 써야한다。이때문에 필름값이 비싸게 먹힌다。특히 요즘 銀국제시세가 수시로 크게변화、필름생산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때문에 오래전부터 학자들은 銀을사용하지 않는 값싼 새로운 감광제 개발에 관심을 쏟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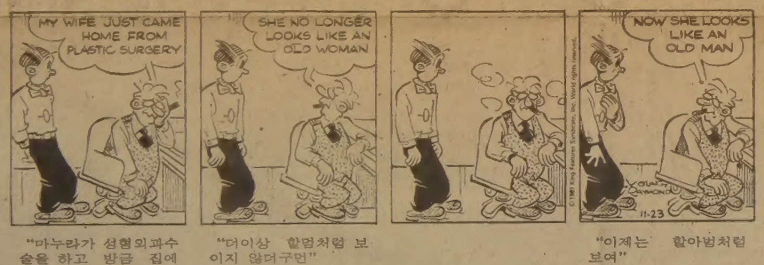
셀레니움감광필름은 이렇게해서 탄생된것。셀레니움감광필름을 처음 개발한사람은 캐나다에있는 제록스연구센터의 폴·빈세트 연구팀。이필름은 가장 웃쪽에 셀레니움입자층을 입힌 플래스틱에 얇은 알루미늄薄膜을 씌워 만들었다。

필름은 사용하기 직전 표면을 陰電荷를 띠도록한후 카메라에끼워 촬영하면 된다。셀레니움층은 빛에 노출되면 빛의 양(光量)에 따라 이온화한다。현상은 필름을 일정온도로 높여주면 이루어진다。

즉 플래스틱이 열을받으면 부드럽게되어 荷電된 입자가 알루미늄薄膜으로 옮겨가 영상을 재현시킨다。

종교서관
535-1920
●기독교및 일반서적
★ 일반서적 다량입하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714 BLOOR ST. W.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畵



"마누라가 성형외과수술을 하고 방금 집에 왔다네"　"더이상 할멈처럼 보이지 않더구먼"　"이제는 할아범처럼 보여"

교 회 안 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3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30 오후 2:00 영어설교 오후1:00 금요저녁 9: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고신장로교회	최사철	오후예배 1:00 성경공부 2:30	148 Thornridge Dr Thornhill	241-4546
대한교회	강근환	주일오후 1:30	3819 Bloor St.W.	741-5411
순복음교회	이필주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회8: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동부한인장로	홍순관	대예배 오전11시 영어예배 12:30분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6:30 주일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장회선	주일낮 11시 주일찬양예배7시 수요예배 8시 주일새벽기도회6시	135 Briscoe st. E.	686-6302 전화선교 439-6331
런던한인교회	신용규	주일대예배11:00 주일저녁예배7:30 금요기도 밤10시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성도교회	김용진, 정춘수	주일오후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30 성경공부 2:40 토요기도 밤7시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7:00 주일오후 1시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장로	김경진	주일오후1:30 금요오후7:00	7 Gretna Ave. (Victoria Pk. & Lawrence)	281-5706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한	주일오후 2시 중고등 영어 오후1시 수요새벽5시30분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새한장로교회	김상호	주일오후 2:00 토요오전 7:00	105 Wilson Ave.	482-4577 633-3132
서머나감리교회	박준하 김욱희	주일오후 2:00 수요예배 7:30	675 Sheppard Av.E.	751-3611 752-9860
선교교회	안성엽	주일낮1:00 저녁7:00	1 Greenland Rd. (Donmills)	444-8002 444-4011 (기쁜소리)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토요집회 오후2시 평일기도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 Tor.	698-5363
평신도복음선교회	선교회	예배 주일오후 2:00	2501 Warden Ave.	298-9031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오후 1:30 4:00 수요오후 7:30	65 Mayall Ave. Downsview	977-5202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00	1272 Weston Rd.	242-4964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30 수요저녁 7:30 금요저녁10:30	126 O'connor Dr. at Pape Ave.	423-8400 423-9880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00 금요오후 8:00 주일 오후4: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조창환	수요저녁7:30 일요오후2:30	63 Dunblaine	488-4141
도한웨슬레 감리교회	어용순	주일오후1:30 금요예배 7:30	2385 Warden Ave.	444-8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용출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30	963 Pharmacy Ave.	755-9766 755-1528
제7일안식일	박원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630-4284
중앙장로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8:00	502 Bathurst	전화설교 961-8361
천주교회	고총옥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83 Power St. Tor.	863-0415
침례교회	홍신웅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8: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00 주일오후 4:30 금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281-7772 245-1687
키치너·워터루 한인교회		주일오후1:30	54 Queen St.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교회	유재신	주일오전11:00 낮12:30	353 Sherbourne St.	922-3863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00 수요오후7:30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30 예배 3:00 주일학교 3: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도넛샾에서 일할 여자분 구함
금, 토근무, 오후11시~아침7시.
☎ : 482-4088

스토아 헬퍼구함(주중)
KINGSTON & MIDLAND
☎ : 266-6355

FULL TIME가게 헬퍼구함.
남자분에 한함
☎ : 536-4533

유경험자 스토아 헬퍼구함(목, 금, 토, 일)
DON MILLS와 SHAPPARD
☎ : 491-9701

쥬스바 파타임 헬퍼구함
☎ : 438-0403(오후6시연락바람)

"봉재사 급구"
● 환경조건 좋음, 새기계만 사용, 다운타운에 위치.
● 일감보장(경험있는분 수입보장)
● 이미많은 한국인이 일하고 있음
IRVING POSLUNS DIVISION OF DYLEX LTD
☎ : 446-1346(Mrs. 아버)

서니일이나
자수하실 분 구함
☎ : 244-1635

버라이어티 스토아 남자 헬퍼구함
단 유경험자에 한함
저녁 4시~8시반까지
39BELSHAW PLACE
☎ : 368-8147

FAST FOOD 햄버거 식당에서 일하실 분을 구함 (BRAMPTON 지역) 유경험자를 우선으로 하나 이런 일에 흥미있는 분. 나이트 쉬프트 우대함
FIRE PIT. (HWY 7 & 케네디 로드, 브람톤)
☎ : 456-2828
ASK : PAUL KIM

크럽자켙만들 재봉사 모집
☎ : 241-5348

FULL TIME 쿡 구함
주 6일일함.
☎ : 421-6016

매매및 양도

성업중인 GIFT SHOP 매매
짧은시간(10~6시까지) B) 656-6660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OPEN R) 224-2227

여자분이 혼자 하실수 있는 CANDY SHOP 팝니다. (일요일은 문닫음)MALL안에 있음.
☎ : 278-3975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 849-0959, 7374-6

BATHURST & QUEEN근처 : 방6개 있는 집, 좋은조건 금방 팔 수 있고 좋은 가격과 복덕방 안낌
☎ : 445-9486

버라이어티 스토아 비지네스
빌딩+분리된 3베드룸 방값로 스카보로지역
좋은 인수조건 모게지 알선가능
CALL : BERNIE SEMELHAGO
☎ : 494-1651, 291-9879
MONTREAL TRUST

매 매
PRIME WEST HILL에 위치한 성업중인 비지니스 야마하 모터싸이클, 스노우 모빌 세일과 서비스 직원이 항상 있음 가격 : $100,000
문의는 꼭 영어로 ☎ : 284-4751(JOAN MANUEL)
A. E. LEPAGE ONT. LTD. REALTOR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479 WEST MOUNT AVE.
☎ : 653-4633 (Mrs. 코매스)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매매
이층방 포함 렌트 : $650
☎ : 656-7753

급매
버라이어티 스토아 장비일절 최저 가격으로 팔겠음.
☎ : 691-5360 699-2442

스토아 매매
주매상 : $4200 아스킹 : $29000
☎ : 423-9899

스토어 장비 팝니다.
1500~2000스퀘어피트 꾸밀수 있는 장비임.
☎ : 886-2743
881-2019

COMMERICIAL BUILDING FOR SALE
2 STORY BRICK DETACHED WITH FULL BASEMENT GARAGE & PARKING FOR STORE & 3 BEDRM APTMENT OR OFFICE. VARIETY BUSINESS EQUIPMENT & STOCK OPTIONAL
☎ : 694-7781

급매 혹은 RENT(VICTORIA PK×FINCH 근처)
고급주택지 4BED ROOM, 4BATH ROOM, LINK HOUSE. 3STORY. 2400 Sq. ft.
지하실 완전꾸며짐, FIRE PLACE, BALCONY.
가격 : $110,000 ☎ : 862-1433, 493-8792

한국일보 광고문의
533-2361
한국일보사 광고국

도나스샾 급매 :
BEST OFFER, 주매상 $4000보증
WHOLESALE+RETAIL
☎ : 432-9955(오후2시 이후연락바람)

T. V. & STEREO BUSINESS FOR SALE
● HIGH PROFIT, ● 고급물품 전문메이커 취급, TRAINING시킴, ● PREMIUM LOCATION.
● VIDEO TAPE MACHINE BUSINESS전망
● ASK. MR전, MR. 진 ☎ : 745-5555

DONUTS SHOP 매매
낮은 지출과 함께 다운타운에 자리하고 있으며, 좋은 이윤을 갖는 WELL ESTABLISHED DONUT SHOP임. 도너스 샵에 흥미를 가진 분 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은 문의 바랍니다.
☎ : 1-735-0962(8 : 30AM~4PM)
1-735-7748(6 : 00PM~9 : 00PM) Mr. 한
WELLAND

인벤토리

—인벤토리—
주아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집·방세·하숙

631A BLOOR ST. W. 2층 사무실 SUBLET합니다.
12월1일 입주가능
☎ : 535-6004

BLOOR & DUFFERIN
2베드룸, 교통편리
☎ : 537-5164

구 혼

1939년생 남자
결혼에 실패한 가족없는 여자원함
☎ : 742-1671 Mr. 유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자동차수리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64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ROGERS GARAGE ☎ : (R)651-9324
자동차 수리 일체 : (B) 226-5430
20 ROGERS RD. 변 달 원 (R)

보 석

다이아몬드·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 MR. LEE

Young's JEWELLERY ● 보석전문가(보석주문, 감정, 뉴디자인, 개조, 수리일체) ● 도매시세로 최고 품질을 최저 시세로 매매(책임보증) ☎ B) 284-9325 R) 281-1954 Mrs담

카펫·카텐

가나안카텐·카펫 브라인드 SHADE
2390 LAKESHORE BLVD. W.
☎ :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췌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삼푸 크리닝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 관 현

태 권 도

임 송 학 태 권 도 장
교포들에게 반액으로 봉사
1963 WESTON RD. (1층)
(웨스톤×로렌스) 로브로 앞

손명수 태권합기도장 :
2186 BLOOR ST. W. 사범 : 손명수
(AT RUNNYMEDE써브웨이) ☎ : 763-1155

박종수 태권도장(사범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미 용

헬 렌 미 용 실 미세스 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킴스 미용실
☎ :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시설및 수리

목공소 **FineWoodwork**
676·1173 769·9468 조 상 민
상점시설및 주택개조·사우나 설치
진열장·카운터·홈빠·책장등 가구제작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김, 가게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상하수도 전기제품 각종유리
PAINT 수리및 시설
☎ : 535-4441 미스타 김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센 츄 리 냉 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악기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82 김 수 홍

Modern Pianos
한일의 SOLOMON 피아노가 서울서 도착! 모던 피아노로 와서보고 구입하세요. ☎ : 665-5600
97NORFINCH DRIVE, DOWNSVIEW.

꽃 집

크로스웨이(구 글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피·김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용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정 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8719(R) 허소피아

꽃도매상 437 CARLAW AVE. TOR
* 각종 CUT FLOWER. 생화. HANGING PLANT. TREE.
* 꽃과 화분을 취급하는 스토어 }(50% OFF)
* 개업인사. 각종파티. 사무실용. 방문
☎ : 465-8167 (MR. 김, MR. 곽)

인 쇄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244-2301

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R. I. A. 김 인 규
ACCOUNTING & TAX 844-0178

여행사

한 국 여 행 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한방원

서 울 한 의 원
●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왕진함)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풍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면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던다스×스파다이나)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기 타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숙

통닭. 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 전문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
☎ : 537-0432 미스타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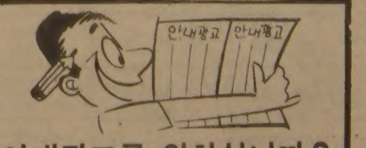
새한칼라 현상소
●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 촬영
○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학

ZAP SUREKILLER ☎ :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니폰·비데오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 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698-0633 가마구씨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 VIDEO 촬영 • wedding
• commercial • wall decors



안내광고를 원하십니까?
● 2줄 1칸 ...... 3회 $10.00
● 2줄 1칸 ...... 5회 $13.00
● 2줄 1칸 ...... 10회 $26.00
50자 이내로 내용을 적으시고 아래주소로 보내주시면, 우편 도착 다음날부터 게재해 드립니다.
THE KOREA TIMES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